

# 몽골제국 잔존세력의 후속 역사 소고(小考): 명대(明代) 서북(西北)의 관서(關西) 위소(衛所)를 중심으로\*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본 연구는 몽골제국이 사라진 후 각 지역에 남았던 여러 몽골제국의 후예 중에 조치 울루스의 제(諸) 칸국이나 모굴 칸국 및 북원처럼 국가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운 군소 세력의 명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명과 모굴 칸국, 북원과 티베트 사이에서 명의 군사 행정구역인 위소로 편성되어 있지만 구성원은 몽골, 티베트, 투르크 등 비한족이며, 명의 강역 바깥에 존재하고 있으나 명과 긴밀한 관계를 지녔던 관서 7위가 바로 그들이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명의 위소로 편성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동족이었던 북·서부 몽골 세력의 침입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내홍을 겪으며 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주제어 관서 7위, 오이라트, 북원, 모굴 칸국, 티베트, 명

## I. 서론

본 연구는 몽골제국이 사라진 후 각 지역에 남았던 여러 몽골제국의 후예 중에 조치 울루스의 제(諸) 칸국이나 모굴 칸국(Moghul Khanate), 북원(北元)<sup>1</sup>처럼 국가를 이루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군소 세력의 명멸 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소세력은 주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위치하여 주변

\* 이 연구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19S1A5C2A01083578).

<sup>1</sup> '북원'은 몽골제국의 카안 울루스가 1368년에 주원장의 공격으로 인해 몽골리아 초원으로 되돌아간 이후의 정권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다만 이것은 사료용어라 볼 수는 없는데, 몽골인들은 몽골리아로 돌아간 이후에도 한동안 '대원(大元)'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가, 이것을 폐지하고는 원래 스스로를 칭하던 대로 몽골, 예케 몽골(Yeke Mongol) 등으로 칭했다. 반면 중국 사료에서도 '북원'이라는 단어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달단(韃靼)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이 글에서는 명의 건국 무렵 몽골리아 초원으로 향하여 1368~1635년 동안 존속했던 국가를 지칭하고자 '북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주로 학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다.

여러 국가들 사이를 줄타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중에 명과 모굴 칸국, 북원과 티베트 사이에는 명의 군사 행정구역인 위소로 편성되어 있지만 구성원은 몽골, 티베트, 투르크 등 비한족이며, 명의 강역 바깥에 존재하고 있으나 명과 긴밀한 관계를 지녔던 세력이 존재한다. 이들을 명에서는 관서 7위(혹은 8위)라 부른다.<sup>2</sup>

이 위소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들의 계보 및 위치비정, 그리고 이 위소들에 적용되는 명의 제도에 치우쳐 있으며, 이들에 관한 연구 또한 대체로 명의 기록에 의존한다(Serruy, 1963: 434-445; 1956: 82-90; 1977: 353-380; 杉山正明, 1982: 1-40; 2004; 杨富学, 2018; 曾文芳, 2002). 그러나 이 위소들은 엄연히 명의 강역 바깥에 있었던 별도의 세력이다. 그들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모두 비한족이며, 특히 지배층의 경우 그들의 북쪽에 자리한 몽골리아 초원의 북원 황제 및 서쪽의 모굴 칸국의 칸과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요컨대 그들 역시 몽골 제국에서 비롯한 세력인 것이다. 건국 초기에 국가의 서북부에 자리한 수많은 세력들 중에 일부를 택하여 번병으로 삼고 위소를 설치하였으며, 이들을 위무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한 것이 명이었지만, 이후의 역사는 명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이 위소를 둘러싼 주변세력의 영향과 그에 대한 위소의 대응이 이 지역의 역사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명의 위소로 편성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동족이었던 북·서부 몽골 세력의 침입과 그로 인해 발생한 내홍을 겪으며 폐지에 이르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단계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고찰할 것이다. 우선 중원 왕조인 명은 북부와 서부에 자리했던 몽골 세력의 공세에 맞서 또 다른 몽골 세력을 번병으로 내세웠는데, 이 전략은 적어도 100년 이상 유효했다.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로 북부와 서부에 위치한 몽골 세력, 즉 몽골리아 초원의 오이라트(瓦剌) 및 모굴리스탄 초원의 모굴 칸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위소 내부에서도 파열을 알리는

<sup>2</sup> 관서 7위는 후술할 하미위, 적근몽고위, 사주위, 한동위, 안정위, 아단위, 곡선위인데, 이 중에 사주위가 폐지된 후 한동위가 좌위와 우위로 분열되어 좌위가 사주위의 옛 영토를 접거했다. 그러므로 이 한동좌위를 별도로 보아 관서 8위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옥관 서쪽에 8위가 모두 병존한 적은 없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즉 15세기에 위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을 오이라트 및 모굴 칸국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위소를 둘러싼 주변 세력의 역학관계가 위소 내의 세력 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들 위소가 자리했던 곳은 동쪽의 티베트 불교 문화권과 서쪽의 이슬람 문화권이 접점을 이루는 곳으로, 단적인 예로 위구르 불교도들의 찬양시와 둔황 막고굴의 공덕주 명단에 등장하는 몽골계 종왕이 이슬람 성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두 종교의 영향력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sup>3</sup> 이러한 지역에서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도를 함께 포함하고 있었던 위소의 폐지가 두 문화권의 경계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이 글은 여러 국가와 문화권의 변경에 자리했지만 스스로는 국가를 이루지 못했던 군소 세력이, 국가 및 문화 간의 경계선이 과거보다 한층 명확해지는 15세기 이후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살펴보는 사례 연구가 될 것이다.

## II. 14세기 말~15세기 초, 관서 위소의 성립과 그 원인

차가타이의 손자로 쿠빌라이 칸의 지지를 얻어 차가타이 울루스를 차지했던 알구(Alghu)와 그의 계열은 차가타이 울루스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차가타이의 또 다른 후손인 바락(Barāq)과 그의 아들 두아(Duwā)가 차가타이 울루스를 통치했다. 두와와 그의 후손들은 모굴 칸국을 통해 18세기 초까지 국가의 명맥을 이어 나갔으나, 알구와 그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그들의 울루스를 상실했다. 대신 알구의 아들인 추베이(出伯)는 그러한 원한관계를 이용한 쿠빌라이에 의해 차가타이 울루스와 접경한 지금의 신장위구르자치구 동부와 그 동쪽 지역에 배치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 다루고 있는 스기야마 마사아키(杉山正明)의 ‘두 번째 차가타이 울루스’라는 대표적인 연구 및 추베이의 계보에 관한 몇몇 후

<sup>3</sup> 이는 본문에서 후술할 서녕왕 솔레이만의 사례다. 일각에서는 그의 이름 때문에 그를 무슬림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그에 관한 위구르 불교도들의 찬양시 등이 둔황 문서에서 발견되었고, 『막고굴유자진언계』, 『중수황경사기』 등의 석각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그와 이슬람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Yakup, 1999: 1-25).

속 연구에 따르면, 쿠빌라이가 사망한 직후 테무르 카안은 배쉬발릭(別失八里)에 북정도원수부(北庭都元帥府), 쿠차(曲先) 일대에 곡선타림도원수부(曲先塔林都元帥府)를 세웠고 이 모두를 추베이의 관할하에 두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카라 호자가 두아의 손에 들어갔고, 두 도원수부는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에서 후퇴해야만 했다. 이 도원수부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기록이 없지만, 원말명초에 추베이의 작위를 지닌 종왕들이 배쉬발릭이나 쿠차의 동쪽에서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다. 추베이의 두 번째 작위였던 빈왕(邇王)의 작위를 지닌 이린진(亦隣真)이라는 인물이 1380년 적근참(赤斤站)에서 명의 서정군에게 발견되었고,<sup>4</sup> 추베이의 첫 번째 작위였던 위무서녕왕(威武西寧王)과 유사한 서녕왕(西寧王)이라는 작위를 가진 인물들이 1350년대에 둔황 막고굴에 흔적을 남겼으며, 원말에 위무왕(威武王)에서 숙왕(肅王)으로 이봉되었다는 후나시리(忽納失里)가 하미(哈密)를 차지하여 충순왕(忠順王)과 충의왕(忠義王)의 시조가 되었다.

상기의 종왕들이 추베이의 후예가 아닐까 하는 추측은 펠리오(Paul Pelliot)로부터 시작되었다가, 스키야마의 치밀한 사료 분석을 통해 그 실상이 밝혀졌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티무르조(Timurid Dynasty)의 계보서인 『계보의 영광』에 수록된 추베이의 계보 안에서 빈왕가, 서녕왕가, 그리고 하미의 충순왕에 봉해진 위무왕 혹은 숙왕가의 계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杉山正明, 1982: 7-8). 추베이 후에 중에 종가라 할 수 있는 빈왕가의 경우, 추베이의 자녀들 중에 빈왕에 봉해진 이들이 『원사』의 기록에 나타나는데, 그 이름들이 모두 『계보의 영광』과 일치한다. 또한 『명사』에도 두 명의 빈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명의 서정군을 이끌던 복영(濮英)에 의해 1380년에 적근몽고참에서 사로잡혔던 이린진으로 그 역시 『계보의 영광』의 계보 말단에 등장한다. 그리고 11년 후인 1391년에 하미에서 잡혀 참수되었던 빈왕 베르케티무르(列儿怯帖木儿)는 계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하미 왕가와 빈왕가가 모두 추베이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이린진이 적근참에서 포획된 후에 그를 계승한 자손이 그보다 더 먼 하미로 달아났다가 그곳에서 붙잡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sup>4</sup> 太祖高皇帝實錄 洪武十三年/五月/十二日.

한편 서녕왕에 관한 기록은 막고굴에서 발견된 원대의 두 석각에 남아 있는데, 첫 번째 석각은 1348년에 세워진 『막고굴육자진언계』(莫高窟六字真言碣)의功德주 명단이다. 이 명단에는 술라이만(速來蠻) 서녕왕 이하 그의 자손들로 보이는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한편 1351년에 완성된 『중수황경사비』(重修皇慶寺記)에는 서녕왕 술라이만이 사망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아들 야간샤(牙罕沙)를 서녕왕으로 표기하였다(楊富學, 2018: 12). 그런데 이 두 석각에 등장하는 술라이만과 야간샤, 그리고 술라이만의 자손 및 왕자들의 이름이 『계보의 영광』에서 추베이의 아들 중에 부알나타시(Büyalnätash) 항목에 보인다. 게다가 석각에는 보이지 않으나 『명사』에 등장하는 사주위(沙州衛)의 몽골왕자 아르카시린(阿魯哥失里, Ārkashirin)의 이름이 술라이만의 손자로 등장하기도 한다.<sup>5</sup>

한편 제일 관심을 모았던 하미 왕가의 초대 두 충순왕, 후나시리와 엔케티무르(安克帖木兒)의 이름 역시 추베이의 또 다른 자손의 후손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위무왕 및 숙왕 작위에 관한 자료는 빈왕이나 서녕왕의 사례처럼 원대의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그 작위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그가 1388년 부이르 호 전투에서 카안의 군대에 복무했고, 패배한 후에는 차가타이 울루스의 아미르였던 앙케투라(Inkätürä)에게 차가타이 칸의 후예의 자격으로 칸의 자리에 초빙되었으며(김호동, 1989: 18), 모굴리스탄으로 가지 못하고 하미에 자리한 후에도 그곳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으므로 차가타이 가의 후예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들 종왕이 행정구역상으로 현재의 간쑤성에 자리하고 있었다면, 그보다 남쪽인 칭하이(青海)성에는 샤릭위구르가 자리하고 있었다. 샤릭위구르는 중국 사료에서 전통적으로 황두회홀(黃頭回紇)이라 불렀던 위구르의 일파다. 위구르 제국이 몽골리아 초원에서 멸망하고 그 일부가 서쪽으로 이주했을 때 일부는 베쉬발릭으로 향하여 텐산 위구르 혹은 코쵸 위구르를 세웠고, 일부는 감주(甘州) 지역에 감주 위구르를 세웠다. 텐산 위구르는 9~10세기에 크게 성장했다가 카

<sup>5</sup> 『원사』에는 술라이만을 테무게 옷치긴의 후손이라 기록한다. 또한 일각에서는 술라이만 왕을, 훌레구 울루스의 아부사이드 칸 사후 칸의 자리에 올랐다가 살해된 술라이만 칸으로 비정하기도 한다. 혼데미르의 『천기들의 빛』에는 술라이만 칸을 훌레구의 아들 요시무트의 후손으로 비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1341년에 살해되었으므로 두 사람을 동일 인물로 비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키타이 및 몽골제국 시기에 종속국으로 전락했으나 14세기까지는 여전히 명맥을 유지했으며, 감주 위구르는 1028년에 서하의 공격으로 인해 멸망했다. 그러나 이 감주 위구르의 일파가 여전히 그 일대에 남아 둔황을 중심으로 세력을 유지했는데, 이들을 황두회홀이라 부른다(胡小鵬, 2005: 88-90). 이들의 위치는 송대부터 명대까지 크게 변하지는 않았으나,<sup>6</sup> 다만 몽골제국 시기를 지나면서 이들을 부르는 칭호에 변화가 있었는데, 명대의 기록에는 이들이 ‘撒里畏兀兒’, 페르시아어 사료에는 ‘Shāriq Uyghur’라 되어 있다. 이는 노란색을 가리키는 투르크어 ‘Sari’에서 유래한 것으로 결국 ‘황두회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 몽골제국 시기를 지나면서 현지 언어인 투르크어 칭호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佐口透, 1972: 192).

명이 원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하였던 14세기 후반에, 샤리위구르를 이끌었던 자는 원의 종왕이었던 부얀티무르(卜烟帖木兒)이다. 그는 1374년에 명의 초무에 응하여 복속했고 홍무제는 그에게 안정왕(安定王)이라는 작위를 주었다.<sup>7</sup> 『명

<sup>6</sup> 『명사』의 기록에 따르면 샤리위구르는 북쪽으로 과(瓜)·사주(현 둔황), 남쪽으로 티베트, 동쪽으로 한동위(현 칭하이 호 서북부), 서쪽으로 천가리(天可里, 현 신강 뤼창현(若羌縣) 철간리극향(鐵干里克鄉))을 아우르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다(錢伯泉, 2002: 21). 또한 14세기 중반 차가타이 울루스의 상황을 묘사한 페르시아 사료에 따르면, 샤리위구르의 영역은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예인 모굴 칸국의 울루스 백 가문, 두글라트 부와 관계되어 등장한다. 두글라트 부의 선조는 차가타이 칸에게서 ‘망갈라이 수베’라는 영역을 사여 받았는데, 그 경계가 동쪽으로는 쿠차와 운대, 서쪽으로는 페르가나의 끝, 북쪽으로는 이식쿨, 남쪽으로는 체르첸(Charchān)과 샤리위구르였다는 것이다(Dughlat, 1996: 9). 체르첸은 서역남로 중에 호탄과 엔치 사이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이므로 샤리위구르가 있는 곳 역시 서역남로의 동부 일대에 해당한다. 종합해 보면 지금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바인귀령 몽골자치주의 뤼창현 일대와 그 동쪽의 칭하이성 서북단이 원말명초에 샤리위구르의 주거지였을 것이다.

<sup>7</sup> 안정왕이라는 작위는 숙왕, 빈왕, 위무왕 등의 다른 작위에 비해 원대와 명대의 상황을 연결시킬 만한 기록의 연결고리가 부재하다. 이 작위에 대한 원의 기록을 검토해 보면, 황경 2년 3월(1313) 토곤(托攏)이라는 인물이 안정왕으로 봉해졌다. 그리고 지순 3년(1332)에는 안정왕으로 토곤의 아들, 도르지발(多爾濟巴勒/朶兒只班)이라는 인물이 봉해졌다. 이 토곤은 태조의 여섯 번째 아들이었던 쿨겐(科爾戩)의 아들 코자(呼察)의 아들 우르다이(烏嚕克岱)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은 본래 하간왕에 봉해졌고 그중에 우르다이는 지원 2년(1265)에 봉해졌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간왕 작위에 관한 기록은 없고, 토곤과 그의 아들은 안정왕의 작위를 받았던 것이다(欽定續文獻通考, 卷 95). 이 기록을 집사와 비교해 보면, 칭기즈 칸의 둘째 부인인 메르키트 부의 쿨란 카툼에게서 낳은 아들 쿨겐의 아들 코자, 그 아들인 우르다이가 쿠빌라이를 모셨기 때문에 하간왕으로 임명되었는데, 우르다이의 아들 에부겐이 카이두와 연합을 모색하다 발각되어 처형되었으므로, 하간왕의 계보가 이 사건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의 후예 중에 토곤이나 도르지발은 여전히

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원대에 영왕(寧王)이라는 작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의 계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었다. 첫 번째로 쿠빌라이의 8남 퉁기추(闊闢出)의 후예로 영왕이라는 작위를 이어받았다는 설과, 두 번째로 차가타이계의 추베이의 후예로 서녕왕을 계승했는데 훗날 앞부분이 사라지고 영왕으로 남았다는 설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보의 영광』에 추베이와 관련된 계보가 밝혀지면서, 서녕왕 설은 설득력을 잃었다.<sup>8</sup> 서녕왕의 계보 안에서는 부안티무르의 이름은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퉁기추의 계보는 『계보의 영광』에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며 그 안에서 부안티무르라는 이름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인물이 정확히 누구의 후예였고 누구에게서 이 칭호를 이어받았는지는 모호하나, 후대에까지 몽골제국, 특히 차가타이의 후예로 인정받았던 것만은 틀림없다.

물론 이 여러 왕가 외에도 중국 서북지역에는 몽골제국 시기에 배치된 세력들이 여럿 남아 있어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이 네 종왕이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명에서 가옥관(嘉峪關) 서쪽에 건설한 관서 7위 중 네 위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하미위는 충순왕가와, 사주위는 서녕왕가와, 적근몽고위는 빈왕가, 그리고 샤릭위구르의 안정위는 안정왕가와 연결되어 있다.

히 카안 울루스에 있다가 안정왕이라는 작위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안정왕 계보는 칭기즈 칸의 서자 계보가 되는데, 문제는 『계보의 영광』을 보면 에부겐과 그의 아들, 그리고 우르다이의 다른 아들의 이름은 밝히고 있으나 토곤이나 도르지발에 해당하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Unknown, Bibliotheque Nationales Persan 67: 41); 한편 중국의 연구자 호소봉(胡小鹏)은 『집사』의 기록을 이용하여 토곤이 차가타이 칸의 서자 모치예베의 후예 배담한(拜答寒)의 장자(원사에서는 형제)라고 보았는데, 『원사』에는 배담한과 토곤이 모두 쿨겐(闊列堅)의 항목 아래에 있지만 전술했듯이 『계보의 영광』이나 『집사』의 쿨겐 항목에 배담한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배담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치예베의 후예가 토곤의 부친인 배담한이라고 비정했다. 이 배담한은 13세기 후반에 추베이와 함께 서북에 주둔했던 종왕 중 하나였다(胡小鹏, 2005: 89). 그의 의견을 따르면 안정왕 계보 역시 차가타이의 후예로 볼 수 있다.

<sup>8</sup> Unknown, Bibliotheque Nationales Persan 67: 82-3; 후수성에서 발견된 복원 선광(宣光)연간의 사료를 보면 도르지발이 여전히 안정왕이었다. 호소봉은 도르지발이 1370년대 어느 시점에 부안티무르로 대체되었다고 보았으나, 『계보의 영광』 중에 서녕왕, 위무왕, 빈왕의 계보에는 15세기 초반의 인물까지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왕의 계보에 해당하는 이들의 계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부안티무르의 계보에 약간의 허수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물론 이 종왕들이 모두 관서 위소에 자리하며 위소의 업무에 간여했던 것은 아니다. 우선 서녕왕이었던 아르카시린은 명에 투항한 후 사주에 남아 있지 않고 요동 지역의 대녕도사도지휘첨사(大寧都司都指揮僉事)에 임명되어 영락제의 막북 원정에서 활약했다. 실제 사주위를 통솔한 것은 1391년에 투항한 아르카시린보다 한참 후에 항복한 추장(酋長) 곤즉래(困卽來)<sup>9</sup>라는 인물이며 그가 귀부한 1404년에서야 비로소 사주가 위소로 편성되었다. 또한 빈왕 이린진과 베르케티무르는 끝까지 명에 복속하지 않았으나, 1404년 몽골 옛 승상의 아들이라 칭하는 타르니(塔力尼)라는 인물이 카라탈(哈刺脫)<sup>10</sup>에서 명조에 투항하자 적근몽고참에 그의 세력을 배치하고 천호소를 설치한 것이 적근몽고위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사주위와 적근몽고위는 원대에 해당 지역에 있었던 옛 종왕 대신 다른 몽골계 유목 수장을 배치하여 세운 위소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명의 ‘위소’라는 이름하에 가옥관 서부 일대에 배치되었던 것은 원대에 이곳에 추베이의 후예인 종왕들이 파견되어 있었던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원말명초에 카안 울루스가 몽골리아 초원으로 후퇴하여 복원을 건설하면서, 새로이 들어선 중원 왕조에게는 서부뿐 아니라 북부의 복원 또한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북원과의 접점은 가옥관 일대 외에도 만리장성의 여러 관문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15세기에 걸쳐 서부에 중심지를 둔 오이라트의 세력

<sup>9</sup> 이 글의 인명 중에는 한어뿐 아니라 몽골어, 티베트어, 아랍/페르시아어 인명이 섞여 있다. 그중에 아랍/페르시아어 인명은 원 발음에 따랐으며, 몽골어 역시 몽골어 전사 원칙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 발음에 따랐다. 그러나 몇몇 티베트어 인명은 원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한자독음을 그대로 사용했다.

<sup>10</sup> 이 지명에 관해 일각에서는 부족이름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는 명대에 작성된 『변정고(邊政考)』의 기록이다. 그 기록에 따르면 숙주 남산에 자리한 부족 중에 함탈독(哈刺脫)이라는 부족이 있다고 한다. 이 부족은 각기 몽골어와 투르크어 부락명을 지닌 두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래 안정위 출신이었다가 동천하여 숙주 남산에 거주했다고 한다(高啓安, 2005: 40-48). 그러나 이들을 안정위와 연결시키는 것은 거의 추측에 가까우며, 『변정고』 및 『숙진지(肅鎮志)』 등의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이 부족은 한동좌위를 세운 업장과 관계된 서번계 부족으로 보는 편이 나올 것이다. 한동은 관서 7위 중에 티베트계 부족이기도 하다. 한편 『변정고』의 기록은 모든 위소들이 동천한 이후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며, 적근몽고위와 관련된 『명실록』 영락 2년(1404) 기록에 등장하는 ‘함탈독(哈刺脫)’(『명사』에서는 ‘哈刺脫’)은 『변정고』의 기록과는 상관없이 세미레지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어어(華夷譯語)』의 「납문부마서(納門駙馬書)」에 등장하는 카라-델(Qala-del)에 관한 다음의 연구를 참조하시오(김호동, 1989: 23-24).

이 성장하면서 가옥관은 북과 서의 적을 동시에 마주하는 최전선이 되었다. 그런데 사방의 몽골 세력을 막아내야 할 최전선의 번병으로 또 다른 몽골 세력을 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한 모험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명을 향해 창끝을 돌려 외세의 앞잡이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들만큼 카안 울루스와 차가타이 울루스의 후예들에 맞서 자신의 독자적 세력을 세우기 바랐던 이들도 없었을 것이다. 앞서 각 위소의 설치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위소의 우두머리, 추장은 해당 지역의 옛 종왕이 아닌 다른 인물이거나, 혹은 종왕 출신이더라도 다소 계보가 모호한 편이다. 사주위 지휘 곤족래의 출신성분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적근몽고 위의 지휘 타르니는 ‘자칭’ 승상이라고 일컫는 인물로 카라탈에서 왔다고 한다. 그가 귀부한 1404년에 카라탈은 모굴 칸국의 근거지였으므로, 그는 아마도 모굴리스탄 초원을 장악한 모굴 칸국의 휘하에 있던 일개 장군이었을 공산이 크다. 사실상 그는 모굴 칸국을 버리고 명의 위소의 반열에 있게 되면서 보다 독자적인 세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하미의 충순왕도 마찬가지로, 그는 본래 모굴리스탄 초원 카라탈에 자리했던 울쿠누트(Urkunūt) 부의 앙케투라에 의해 꼭두각시 칸으로 초빙되었다가 티무르의 공격으로 인해 울쿠누트 부가 파괴되자 하미에 눌러앉은 경우다. 그의 기왕의 경험으로 볼 때, 몽골리아 초원을 떠돌거나 중앙아시아에서 차가타이 계의 각축장에 뛰어들기보다는 동쪽으로 이주하는 것이 그 자신과 후손을 위해서는 훨씬 좋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한 14세기 말~15세기 초 당시 위소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세력 판도를 고려했을 때, 이 위소들이 명과의 연합을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관서 위소의 초기 설립 과정을 보면 위소의 구성원들이 명과 북·서에 있는 여러 몽골 세력 사이에서 스스로의 향배를 두고 저울질하다가 명을 선택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사료에 비교적 자세히 드러나 있는 것은 샤릭위구르 세 위소의 상황이다. 샤릭위구르는 관서의 여타 위소보다 위치상으로는 명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부 및 최초 편성 시점은 타 위소에 비해 30년 가까이 빠르다. 즉 그들은 홍무제가 남경(南京)에서 북경(北京)으로 진격하여 원(元)을 몰아낸 지 10년도 되지 않은 1374년에 명에 귀부한 것이다. 홍무제는 샤릭위구르를 구성하는 네 부족인 아단(阿端), 아진(阿眞), 고선(苦先), 첩리(帖

里)에 각기 동인(銅印)을 주었고,<sup>11</sup> 다음해인 1375년에는 안정위와 아단위(阿端衛), 곡선위(曲先衛)를 편성했다.<sup>12</sup> 이 3개의 위소 중에 안정위는 안정왕이 직접 통솔하고, 곡선, 아단에는 각기 지휘가 임명되었다.

즉 샤릭위구르 내에서 명에 인신을 받아 개별적으로 조공을 바칠 수 있는 부족은 4개이고, 명의 허가를 받아 일정 이상의 군대를 소집하여 주둔지 근방을 수호하는 위소는 3개인 셈이다. 그중에 안정위는 몽골 중왕 출신인 안정왕 개인의 것이고 아단위와 곡선위는 별도의 지휘가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대의 ‘곡선타림대원수부’처럼 곡선과 타림은 이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타림 부는 곡선 부에 군사적으로 예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정위의 영역이 ‘아진의 땅’이었다는 것으로 보아<sup>13</sup> 샤릭위구르 출신이 아닌 몽골계 안정왕은 샤릭위구르의 네 부족 중에 주로 아진 부를 중핵 세력으로 삼고 그들의 목지

11 이 네 부족의 이름은 각기 특정 지명과 관련되어 있다. 우선 아단은 호탄, 곡선은 쿠차 등 샤릭위구르 외부의 지명과 연결되어 있는데, 쿠차와 호탄의 이름을 가진 부족이 샤릭위구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학자들은, 대칸 올루스가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 사이에 차가타이 올루스의 연이은 진격으로 인해 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에서 퇴각하면서 본래 쿠차와 호탄 출신이었던 일부의 무리가 동부로 이주했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한편 아진은 칭하이성-신장 변경의 알툰 산(阿爾金山) 부근 목지, 첩리는 ‘타림’을 의미하는데, 타림이라는 지명은 타림분지, 혹은 타림 강 등의 자연 지명을 연상케 하나, 이 지명은 서역 북로 전체에 적용되므로 좀 더 특정한 영역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페르시아어·중국어 양측 사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우선 『명사』의 「서역전·곡선위」 서두를 보면 원대에는 곡선위가 자리했던 곳에 추베이가 이끌었던 ‘곡선타림도원수부’가 있었다고 한다. 이 도원수부는 본래 1295년 창설 당시 쿠차에 있었으나, 그 직후 차가타이 올루스의 두와가 동진하여 결국 카라호자를 차지했으므로, 후퇴하여 곡선위의 위치에 자리했던 것이다. 다만 곡선위의 위치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사료상 찾아볼 수 없으나, 근간에 신장 뤼창현 와석협(瓦石峽)에서 곡선타림도원수부의 군사문서가 다량 발견되었다(錢伯泉, 2002: 21). 그러므로 뤼창현 부근에 타림이라는 지명이 있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티무르조의 역사서 『승전기』에는 모굴 칸국 3대 칸인 히즈르 호자가 1400년경 사망했을 때 두글라트부의 영지를 공격한 티무르의 손자 이스칸다르의 공격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카슈가르, 아르칸트, 우시, 악수, 쿠차(바이), 타림, 호탄을 거쳐 카슈가르로 되돌아온다. 이때 ‘타림’이라는 지명이 강이나 분지가 아닌 도시 명으로 등장하며, 그 위치는 쿠차와 호탄 사이에 위치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타림은 서역 남로 오아시스 중 쿠차와 호탄보다 동쪽, 현재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 뤼창현 근방에 위치한 오아시스 도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12 일설에 의하면 곡선위는 이후 샤릭위구르의 기존 위소(안정, 아단)가 티베트 장군의 공격을 받아 위소가 파괴되어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설립되는 시점에 별도로 설치되었다고도 한다.

13 『明史』, 西域傳·曲先衛.

에 안정위를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단위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으나, 2장에서 언급할 1425년의 기록을 보면 아단위 지휘가 곡선위 지휘의 압력을 받아 출정하거나, 아단위 지휘가 곡선위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므로, 아단 부는 곡선 부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한편, 그들의 압력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샤릭위구르의 세력 중에 양대 세력은 안정왕과 곡선위 지휘인 썸인데, 이는 샤릭위구르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안정왕이 복속했던 1370년대에 서북에 대한 명의 장악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전술한 관서의 여타 위소가 생기려면 30년을 기다려야 했고, 이들보다 훨씬 동쪽에 위치한 산시(陝西)-칭하이성 경계의 서번(西番) 세력조차 명에 복속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1377년 서번의 토관이었던 도르제빠(朵兒只巴)의 침입으로 인해 샤릭위구르의 제 위소들은 파괴되고 인신을 상실했으며, 그 이후 10여 년 간 명의 기록에서 샤릭위구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도르제빠의 반란은 티베트계 부족 내에서 발생한 갈등의 결과로, 그는 1376년에 티베트계의 한동부(罕東部)를 공격했는데, 원의 선위사(宣慰使) 출신 토관이었던 해주위(河州衛)의 지휘가 그에 맞서서 군대를 이끌고 칭하이 호 북산까지 그를 몰아냈다.<sup>14</sup> 이에 서북쪽으로 달아나 사막으로 도망하던 도르제빠가 안정위를 공격하여 안정왕이 지니고 있던 명의 인신(印信)을 빼앗아 갔던 것이다. 물론 인신은 명에게 재차 요구하면 그만이었지만, 당시에 도르제빠의 반란만이 샤릭위구르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다. 사실 도르제빠가 안정위를 지나기 전에 이미 곡선위의 지휘였던 샤라(沙剌)가 안정왕을 살해하고, 안정왕의 아들 판자시리(板咱失里)가 샤라를 살해하고, 샤라의 부장이 판자시리를 살해하는 서북판 ‘안사(安沙)의 난’이 발생한 상태였다.<sup>15</sup> 또한 안정왕의 또 다른 아들인 살아지실가(撒兒只失加) 역시 그 형에게 살해되는 등 안정왕 가문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관한 모굴 칸국의 사료를 보면, 샤릭위구르에 관한 단편적

<sup>14</sup> 太祖高皇帝實錄, 洪武九年/八月/二十八日; 이후 한동 부는 관서 7위 중에 유일한 티베트계 위소인 한동위로 편성된다.

<sup>15</sup> 太祖高皇帝實錄, 洪武十年/四月/二十八日.

인 기록이 등장한다. 모굴 칸국의 3대 칸인 히즈르 호자 칸(khizr Khwaja Khān)은, 젓먹이이던 1365년에 부친인 투글룩 티무르 칸(Tughluq Timūr khān)이 사망하고 두글라트(Dughlat) 부의 카마르 앓 딘이 반란을 일으켜 모굴리스탄 초원을 장악했을 때 일족이 몰살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때 두글라트 부 내에서 카마르 앓 딘(Qamar al-Din)의 정적이었던 후다이다드(Khudādād)가 홀로 살아남은 히즈르 호자를 빼돌려 자신의 영역인 카쉬가르(Kāshghar)에 12년간 두었다. 그 후 히즈르 호자는 카마르 앓 딘의 위협에 못 이겨 바닥산, 호탄 등을 떠돌다가 샤릭위구르 및 롭-카탁(Lüb Katak)으로 달아나 이곳에서 재차 12년을 보냈으며, 이후 카마르 앓 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굴인들이 그를 소환하였고, 그는 칸의 자리에 올랐다(Dughlat. *Tārīkh-i Rashīdī*, 1995: 31). 물론 각 지역에서의 체류 기간이 12년이라는 비교적 관습적인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투글룩 티무르의 사망이 1365년이고 히즈르 호자가 티무르조의 사서에 모굴칸국의 칸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는 1389년 티무르의 5차 모굴리스탄 원정 시기이므로, 단순한 계산으로도 히즈르 호자가 카쉬가르에서 샤릭위구르로 향했을 시점이 1377년 무렵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정왕 가문이 하극상의 비극으로 처참히 파괴되었을 때 또 다른 황금씨족의 후예가 샤릭위구르 지역으로 들어와 12년간 머물렀던 것이다. 한편 안정왕의 유일한 생존 후손은 히즈르 호자와 같은 운명이 되어 티베트에서 오랜 방랑을 시작했다.

물론 히즈르 호자가 샤릭위구르 내의 분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샤릭위구르에서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기록이 명과 티무르조, 모굴칸국의 기록에 모두 생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티무르가 수차례에 걸친 모굴리스탄 원정을 통해 카마르 앓 딘을 모굴리스탄에서 몰아낸 1389년 무렵, 모굴리스탄 남단의 율두즈(Yüldüz) 초원 일대에 슬며시 복귀해 있었다. 티무르의 군대가 5차 모굴리스탄 원정 당시에 그를 마주했을 때 공격을 거두고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것은, 그가 5차 원정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티무르의 5차 원정의 결과로 모굴리스탄 초원에 있던 여러 유목 부족 세력들이 제거된 틈을 타 히즈르 호자는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갔으며, 티무르가 이란 5년 원정(1392~1396)을 위해 마와라안나흐르(Māvarā' al-Nahr)를 비웠을 때는 역으로 사마르칸트(Samarqand)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 그

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샤미 자한(Shama' Jahān)은 티무르조의 포로가 되었다. 이후 티무르가 샤미 자한을 돌려보내어 히즈르 호자의 딸 투칼 하눔(Tukal Khānum)에게 청혼함으로써 두 군주가 1397년 무렵부터 연합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듯 히즈르 호자가 옛 땅인 모굴리스탄 초원으로 귀환했다가 티무르 군에게 패배했을 무렵, 샤릭위구르는 다시금 명에 복속하여 명의 관서 위소로 재편성되었다. 이것은 샤릭위구르가 모굴 칸국의 정세를 면밀히 고려하여 내린 결정으로 볼 수 있다. 히즈르 호자가 아직 티무르에게 패배하기 전이었던 1392년 무렵, 명의 장군 송성(宋晟), 남옥(藍玉) 등이 하미 공격의 일환으로 서정을 행할 때, 아진천(阿眞川)에 머무르던 토인 수장인 사도(司徒) 하산(哈善)은 명의 군대와 마주친 후 달아났었다. 그러나 3년 후인 1395년에는 샤릭위구르의 수장이 감주(甘州)에 파견되어 있던 숙왕 영(楨)에게 직접 나아가 복속을 표했고, 홍무제는 이듬해에 그들에게 진성(陳誠)을 파견하여 안정위를 재건했다.<sup>16</sup> 이때는 히즈르 호자가 티무르조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패배했던 1394년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이다. 이는 서쪽의 상태를 관망하고 있던 샤릭위구르가, 티무르조에 복속할 만큼 약해진 모굴 칸과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를 선택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1393년 무렵 명은 섬서행도지휘사사(陝西行都指揮使司)의 치소를 장량(莊浪)에서 감주로 이전했고 홍무제의 아들인 숙왕을 이곳에 파견했다. 이는 가옥관 일대에 대한 명의 지배가 보다 확고해졌음을 시사한다. 명의 황제가 자리한 곳은 여전히 멀었지만, 변경의 수신은 관서의 위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주둔했으므로 위소의 입장에서는 서부의 침입에 대해 다소간 안심할 수 있었다. 물론 명은 이들 위소 세력을 그야말로 ‘번병’으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북쪽과 서쪽 세력에게 공격 받는 일이 있더라도 큰 도움을 주지 않았으나, 이러한 명의 생각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수십 년 후의 일이었다. 여하튼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옥관 서부에 자리한 몽골 세력들은 북쪽과 서쪽의 동족들 대신 명을 선택했던 것이다.

명은 동족을 배신하고 자신의 위소가 되기를 청했던 이들을 회유하여 위소의 대열에서 빠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이들은 명이 충

<sup>16</sup> 太祖高皇帝實錄, 洪武二十九年/三月/二十五日.

순왕과 안정왕, 그리고 지휘를 비롯한 여러 토관을 임명하는 것 외에는 명으로부터 큰 내정 간섭을 받지 않았다. 이 토관들 역시 대체로 세습제였는데, 대가 끊기거나 혹은 내부에 변고가 생겨 특정 토관이 문제를 일으키면 명에서 다른 토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내정에 간여하는 일이 간혹 있었지만, 대체로는 몇 가지 의무만 수행하면 명이 이들의 내정에 간여하는 일은 드물었다. 게다가 그 의무 역시 그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당근이 수반된 의무였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해야 하는 내조 의무의 경우, 조공무역이라는 경제적 장치로 토관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위소 측에서 오히려 사신 파견에 열심이었다. 심지어 위소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기아 등이 발생하면 명에 사신을 보내어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sup>17</sup> 또 다른 의무는 말을 조달하는 일이었는데, 그 대가로 차 혹은 비단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위소에게는 큰 이득이 되었다. 그들 스스로 차나 비단을 소모하거나 혹은 이서 지방과의 무역에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8</sup> 한편 그들의 제일 큰 의무는 명이 서북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할 때 군사를 동원하거나 관서를 지나는 사신을 호송하는 일이었다. 그때마다 명에서는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지휘 및 여러 토관에게 은사를 내렸다. 사실상 그들의 친명적인 행위 모두에 경제적인 이득을 부여함으로써 그들이 그 이득에 이끌려 자신의 위치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몽골 제국이 북쪽으로 퇴각하고 중원에 명이라는 새로운 한족 왕조가 들어섰을 때, 몽골제국 당시에 카안 울루스와 차가타이 울루스 사이에서 카안 울루스 측에 서 있던 차가타이 가 일원들은, 명이 들어선 후에는 한족 왕조인 명과 우호관계를 맺었다. 이들이 자리한 곳은 북·서쪽에 위치한 몽골과 명 사이의 완충지대가 되었고, 이는 명의 서북 변경 방어에 크게 기여했다. 이 기묘한 관계는 명의 명운이 쇠락해 가던 16세기까지 이어졌는데, 다음 장에서는 15세기에 이들이 동족들의 남하 및 동진에 맞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sup>17</sup> 명과 위소와의 조공무역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지만, 가장 고전적 연구이자 명의 전 시대를 아우르는 Serruys(1967)의 연구를 주로 참조했다.

<sup>18</sup> 명과 위소와의 차마무역에 관한 연구는 谷光隆(1972) 참조.

### III. 15세기 전반, 오이라트의 성장과 위소의 파열

전술했듯이 관서의 일곱 위소는 홍무제~영락제 재위초기의 서북 상황 및 명이 그들에게 제시한 여러 가지 혜택을 고려하여 동쪽에 칼끝을 겨누는 것을 선택했다. 홍무제 시기만 해도 몽골리아 초원에 자리한 여러 세력의 거점은 관서 위소와는 상당히 멀었고, 모굴 칸국의 세력은 약했다. 당시의 카안인 토구스 테무르 카안이 홍무제에 의해 크게 패배했던 곳은 현재 내몽골 자치구의 동쪽 끝에 위치한 부이르 호이며, 모굴 칸국은 티무르에 패배하여 본래의 근거지인 이식쿨(Isigh-Kül)에서 배쉬발릭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그들의 세력이 워낙 약화되어 있어서 관서 위소 전체가 배쉬발릭을 견제한다면 도저히 당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1404년에 티무르가 동몽골과 연대한 카안 울루스의 후예, 울제이 티무르를 동반하고 중국 원정에 나선 것은 관서 위소에게는 큰 위협이었다. 티무르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모굴 칸국의 물자와 군대를 징발했고, 이 소식은 ‘모굴 칸국이 사마르칸트와 함께 중국을 공격하러 온다.’는 하미의 첩보를 통해 영락제에게 알려졌다.<sup>19</sup> 그러나 티무르는 원정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고 이후 4년에 걸친 지난한 계승분쟁이 발생했으므로 티무르의 자손들은 동방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이에 당시 모굴 칸국의 칸 샤미 자한은 2년 만에 입장을 바꾸어 명에게 티무르조를 공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sup>20</sup>

그러나 영락제 시기가 되면 몽골리아의 세력은 홍무제 시기보다 훨씬 관서 위소에 가까워졌다. 몽골리아 초원에서는 15세기 후반에 다얀 칸(達延 可汗)이 등장할 때까지 전역을 통일한 세력이 전무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항상 내부에서 분열과 갈등이 존재했는데, 그중에 일부 세력은 몽골리아 내에서 세력을 상실했을 때 관서 위소가 위치한 가옥관 해외(塞外)~하미 북부에 펼쳐진 황야로 왕왕 남하하곤 했다.<sup>21</sup> 예를 들면 15세기 초반에 동몽골이 홍무제에게 대대적으로 패하고 그 틈을 타 오이라트가 조금씩 세력을 펼치던 와중에, 정확한 계보를 알

<sup>19</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三年/二月/二十四日.

<sup>20</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五年/四月/十三日.

<sup>21</sup> 이곳은 북원 시기의 예지나路-하미 북산- 배쉬발릭으로 이어지는 서북 해외, 가옥관 바깥의 황야지대이다. 이를 간쑤 해외 황야라 부르도록 하겠다.

수 없으나 몽골의 칸이라고 칭해지는 굴리치(鬼力赤)라는 인물이 하미의 북산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인물의 계보에 관한 정보는 역사서마다 다르며, 오이라트에 적대적이었으나 동몽골 아미르들과도 완벽한 연대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이처럼 몽골리아 초원 동·서의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는 이 황야지대에 자리하며 하미의 내정에 간여하다가 결국 충순왕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분노한 모굴 칸국의 샤미 자한이 군대를 일으켜 굴리치를 공격했는데,<sup>22</sup> 이것이 관서 위소를 둘러싼 몽골리아 세력과 모굴 칸국의 첫 번째 충돌인 셈이다. 이때 하미위는 충순왕의 살해를 명에 은폐함으로써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세력자인 굴리치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굴리치가 다른 칸 후보를 추종하는 부중에 의해 살해된 후, 전술한 간쑤 새 외 황야에는 여러 몽골 세력의 방문이 잇따랐다. 그중에 주목할 만한 인물은 훗날 북원의 타이송 칸(岱宗汗)이 되는 토평부카(脫脫不花)다. 1409년 감숙총병관이었던 하복(何福)이 황제에게 상주하기를, 몽골의 토평부카왕과 바투왕 휘하 여러 몽골 세력들이 제각기 소부를 이끌고 남하하다가, 예지나(亦集乃)에 멈추어 있다 하였다. 황제는 토평부카가 기왕에 왔으나 계속 예지나에 멈추어 있으니 무언가 변고가 생겼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23</sup>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간쑤에서도 달한 소식에 따르면 그와 함께 항복 의사를 밝혔던 이들은 남하했으나, 토평부카는 되돌아갔다고 한다. 황제는 “오는 자 막지 않고 가는 자 좇지 않는다(來者不拒去者不追)”라고 하며 그에 대한 추격을 거두었다.<sup>24</sup> 이후 그에 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으나, 오이라트의 마흐무드(馬哈木)가 보얀시리(本雅失里)를 살해하고 전국새를 얻었을 때, 명에게 요구한 사항 중에 하나가 토평부카의 아들을 귀환케 하는 것이었다. 아마도 1409년에 그가 항복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을 때, 남하한 나머지 세력 중에 그의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그의 소식은 1432년 4월에 재차 등장하는데, 그가 20여 호와 더불어 명과 접촉했다가 포기했고, 현재 철문관 부근에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황제는 다시금 “오는 자 막지

<sup>22</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三年/四月/十五日.

<sup>23</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七年/七月/十七日; Robinson(2020: 103-104).

<sup>24</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七年/八月/三日.

않고 가는 자 좇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그에 대한 추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20호와 함께 있는 이를 좇아서 잡아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었다.<sup>25</sup> 그러나 그는 2년 후에 무리를 이끌고 마흐무드의 아들인 토곤 타이시에게 합류하여 타이송 칸으로 등극함으로써 토곤 세력에게 칭기즈 칸의 정통성을 담보해 주었을 뿐 아니라, 동몽골 아룩타이(阿魯臺)의 처자·부속을 습격하고 그 가축을 약탈하는 등 몽골리아 초원 내 세력 다툼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

그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보면, 오이라트에서 에지나의 통로를 통해 남하했으며, 약 20년 후에 철문관(鐵門關)에 나타났다. 다만 이때의 철문은 지금 잘 알려져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그 철문관이 아니라, 량주(涼州, 현 우웨이 시) 동부에 위치한 관문으로 보인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에지나에서 하투(河套)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후의 여러 몽골 세력에서도 확인된다.

독토부카와 일부 몽골 세력이 1409년에 남하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전 해에 몽골리아 초원으로 나아가 동몽골의 아룩타이와 합류하여 칸이 되었던 보안시리, 울제이 티무르(Uljay Timūr) 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몽골리아를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던 울제이 티무르가 새로 칸이 되면서, 몽골리아 초원의 여러 세력들이 그에게 합류하기보다는 그의 영역을 벗어나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미국의 학자 로빈슨(Robinson)은 1409년에 집중된 여러 몽골 집단의 투항(Submission)이 거의 3만 명에 이르렀음을 언급했다.<sup>26</sup> 결국 보안시리는 몽골리아로 돌아간 지 불과 3년 만인 1411년에 오이라트와 명의 협공으로 사망했으나, 영락제는 보안시리의 죽음으로 인해 세력이 증대된 또 다른 몽골 세력을 가만 놓아 두지 않았다. 보안시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오이라트의 마흐무드는 그 이후 점차 세력을

<sup>25</sup>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七年/四月/十五日.

<sup>26</sup> Robinson(2020: 109); 로빈슨은 북원에서 이제껏 칸으로 섬겼던 이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울제이 티무르는 아웃사이더에 가까운 존재였다고 한다(Robinson, 2020: 107). 한편 본고에서는 1410년 전후에 서북을 통해 명으로 투항한 인물 중에 다음 칸이 된 독토부카에 집중하여 서술했으나, 그 외에도 수많은 인물이 명으로 투항하여 명의 변경지대에 재배치되었고 일부는 명에 의해 발탁되어 사신이나 막북 원정 장군 등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의 책 3장 참조.

확장했다가 영락제의 2차 막북 원정(1414)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1416년에 아룩타이와의 결전에서 패한 후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다시 아룩타이 세력의 부상을 야기했으며, 영락제는 1422년부터 3년간 아룩타이를 공격하기 위해 친정에 나섰다.

그러나 명이 1420년대에 세 차례 막북 원정의 목표를 아룩타이에 두었던 것이 무색하리만큼, 1420년대는 동몽골보다는 오이라트의 세력이 몽골리아와 그 주변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1422년 영락제의 3차 친정 당시 투항한 몽골인들의 보고에 따르면 마흐무드의 아들 토곤(托攏)이 그 전 해에 아룩타이를 대파했었다고 한다. 물론 아룩타이는 1426년에 아다이 칸(阿台汗)을 옹립하며 오이라트와 끝까지 대립했으나, 1434년에 결국 토곤과 토크투부카의 잇단 공격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런데 이러한 몽골리아 초원 내의 세력 변동은 곧바로 서북에 영향을 끼쳤다. 1420년대 중반부터 관서 위소 내에 이전에는 없었던 소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1427년에 사주위는 명을 찾아 온 모굴 칸국 우와이스(歪思) 칸의 사신 및 사마르칸트의 사신을 별안간 약탈했다.<sup>27</sup> 물론 이러한 행동은 한족 왕조에서 으레 그렇게 생각하듯 ‘야만인 이민족들의 일반적인 행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사주위가 창설된 후 20년 동안 명과 티무르조 간의 유례없이 잦은 사신 왕래가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약탈은 발생한 적이 없었다.

이때 위의 사주위 약탈 기록에 등장하는 ‘달적(韃賊)’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주위는 몽골계 수장을 지닌 위소이기는 하나, 명의 기록에서는 이제껏 이들을 달단(韃鞬)이라고 표기하지 않았다. 이 당시에 달단이라는 표현은 몽골리아 초원에 거주하는, 오이라트 이외의 세력, 즉 동몽골을 주로 지칭했다. 그런데 이 우와이스 칸 사신을 공격한 사주 세력을 지칭할 때 ‘사주위 달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또한 사마르칸트 사신을 약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사주위의 도지휘 차간부카(察罕不花)의 아들과 달적’이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사주위의 몽골계 지배층은 ‘달적’과 별도로 언급되므로, ‘달적’이란 존재는 몽골리아 초원에서 남하한 후 사주위의 일부 세력과 연합하여 변경을 교란했던 세력이라

<sup>27</sup>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二年/正月/二十七日.

볼 수 있다.

상기 사건 이후 관서 위소에서는 사주위, 한동위, 적근몽고위의 일부 세력이 중국을 찾는 서역의 사신을 약탈하거나, 관서 일대를 순찰하는 중국인 관료를 약탈하거나, 중국 변경 관료와 내통하는 등 변경을 계속 교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의 움직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면 관서 7위 내의 일부 세력이 주둔지 일대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앞서 언급한 달적의 존재와 결부지어 보면 이는 몽골리아 초원에서 모종의 세력이 남하하여 그간 명과 우호관계를 맺어 왔던 관서 7위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달적의 선동에 이끌려 약탈 및 분란에 동참했던 이들의 면면을 보면 명에게 일정한 관직을 받은 지배층이기는 하나 당시에 명이 각 위소를 총괄하도록 명령했던 인물이 아닌 이들이었다. 앞서 1427년에 달적과 함께 사마르칸트의 사신을 약탈했던 사주위 도지휘 차간부카의 아들과 같은 인물이 바로 그 예이다. 사주위는 창설된 시점부터 1440년도에 그가 사망할 때까지 곤즉래가 줄곧 총괄해 왔는데, 그는 명에게 서북의 정세를 염탐하여 보고하는 등 명의 서북 관리에 있어서 최측근 첩병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주위 수장의 행보와는 반대로 달적과 교통하여 일대에 혼란을 야기하는 별도의 세력이 횡행했던 것이다.

달적은 사주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1430년대에는 적근몽고위와 한동위에도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한동위와 적근몽고위의 일부 지배층, 예를 들면 한동의 거아즉(可兒即), 고노파도마실가(苦奴把都麻失加), 반마사결(班麻思結) 및 적근몽고의 혁고자(革古者), 파도마(把都麻) 등이 체르첸(扯兒禪), 오이라트, 하미, 호탄(阿端), 헤라트에서 오는 사신을 약탈하거나 여타 위소를 침입하고, 심지어는 숙주까지 약탈을 시도했다. 반면 사주위의 추장 곤즉래나 적근몽고위의 추장 차왕실가(且旺失加)는 명의 명령을 받아 이들과 맞서 싸웠다. 이 달적의 실체는 1433년까지 사료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1433년부터 달단 멩케부카(猛哥卜花)라는 인물이 하미나 사주를 약탈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sup>28</sup>

이와 관련하여 1435년 병부에서는 당시에 간쑤 서외 황야에 자리하면서 하서 회랑 및 관서 일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세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sup>28</sup> 宣宗章皇帝實錄, 宣德八年/七月/二十九日; 英宗睿皇帝實錄, 宣德十年/正月/十三日.

간쑤 연변을 진수하는 양주 등 7위 지방은 서로 180여리 떨어져 있어, 북로의 도적이 출몰하면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다. 양주의 동쪽과 철문관 바깥에는 도르지백(朵兒只伯)이 있고, 진이(鎭夷)의 북쪽, 예지나로에는 아단지(阿端只)가, 숙주의 서쪽, 하주 변경 바깥에는 멩케부카(猛哥卜花)가 기회를 노리고 있어 변방의 우환이 되고 있다.<sup>29</sup>

상기 기사를 통해 멩케부카를 포함하여 도르지백과 아단지 등이 ‘북로의 도적’으로 간쑤 새외 황야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르지백은 동몽골 아룩타이의 부장으로 1434년 토곤과 아룩타이의 전쟁에서 아룩타이가 패배한 이후 양주(涼州) 동부에 와서 하투 서부 및 간쑤 변경 일대를 약탈한 것이 명의 기록에 보이고 있다. 한편 멩케부카는 1423년 영락제가 막복을 원정하던 시기에 아룩타이 진영에서 명에 투항했던 충용왕(忠勇王) 에센토곤(也先土干)의 동생인데, 그는 형과는 달리 명에 복속하지 않고 간쑤 새외 황야에 자리하고 있었다. 요컨대 이들이 관서 위소의 몇몇 세력과 결탁하여 근 10년간 그 일대에 소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1437년의 기록에 따르면 아단지와 도르지백이 파견한 이서(迤西)의 사신이 1달 사이에 두 차례 내조했는데, 명은 ‘너희가 아룩타이(和寧王) 사후에 처자와 함께 그곳에서 안녕히 있을 수 없어 변방을 공격하였음을 이해하면서도, ‘수년간 번구가 되어 우리의 변경을 괴롭히니, 오이라트의 순녕왕(順寧王) 토곤과 관서 제 위소가 너희를 토벌할 것을 청한다. 그러나 너희가 귀부하였으니 편한 곳에서 유목을 행하라. 만일 문제를 일으키면 오이라트의 청에 따라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라고 답했다.<sup>30</sup> 그러나 그들이 실로 복속하여 소란이 잠잠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2년 후에는 하미에서 발견되었다.

이 달적들이 1437년 이후에 하미로 퇴각한 사실은 적근몽고위의 수장 차왕실가가 멩케부카 및 토곤티무르(脫歡帖木兒)와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31</sup> 이 토곤티무르는 『명실록』에는 ‘달단’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sup>29</sup> 英宗睿皇帝實錄, 宣德十年/三月/八日.

<sup>30</sup> 英宗睿皇帝實錄, 正統二年/七月/九日; 英宗睿皇帝實錄, 正統二年/八月/十五日.

<sup>31</sup> 明史, 西域傳·赤斤蒙古衛;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元年/九月/三十日.

는 하미의 충의왕이다. 멩케부카는 명과 관서 위소 주장들의 반격으로 인해 하미로 퇴각하며 하미의 충의왕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또한 아단지 및 도르지백 역시 이 시점에 하미로 향했는데, 이는 사주위의 도지휘동지 아치부카(阿赤卜花)가 주를 올려, 자신이 과거에 아단지 및 도르지백에 의해 하미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평정되었음을 듣고 되돌아가고자 했으나 하미의 도독 피탈납(皮刺納)가 보내주지 않으며 오이라트와 서로 싸우고 있다고 보고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sup>32</sup>

이처럼 달적들이 하미로 향했던 사건은 결국 오이라트의 직접적인 하미 내정 간여로 이어졌다. 하미는 1420년대부터 오이라트와 혼인관계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런데 돌연 1440년에 타이핑(太平)의 아들 네레쿠(捏列骨)와 샴스 옷 딘(陝西丁)이라는 장군이 하미를 포위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바르쿨(把思闊)에 자리했었던 멩케부카가 하미로 와서 그들을 제압했다.<sup>33</sup> 이 사건 직후 피탈납과 사만치(撒蠻赤) 등의 하미 도독이 멩케부카와 손을 잡고 충순왕을 살해하고자 했다가 발각되었다는 보고가 명에 전달되었다. 이 두 사건은 명에 약 한 달의 간격을 두고 보고되었는데, 그만큼 하미 내부의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디 하미에는 충순왕 계열과 충의왕 계열이 존재하는데, 종가는 충순왕이지만 충순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이 별도로 세운 것이 충의왕 계열이다. 당시에 충순왕인 다와다시리(倒瓦答失里)는 오이라트 에센(也先)의 누이인 눈다시리(弩溫答失里)의 자녀였으므로, 위의 사건은 하미위의 도독 일부와 충의왕이 ‘달적’과 연합하여 오이라트를 배후에 둔 충순왕을 살해하고 하미를 장악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결국 오이라트의 에센이 직접 간여하여<sup>34</sup> 하미를 완전히 장악하고 더 나아가 여타 관서 7위에 영향을 발휘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그 이후 멩케부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그와 함께 혼란을 야기했었던 반마사결이나 혁고자 등은 여전히 관서 위소 내에서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켰다.

<sup>32</sup>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四年/十月/二十六日.

<sup>33</sup> 英宗睿皇帝實錄, 正統五年/八月/六日.

<sup>34</sup> 김호동(1993: 124-126); 눈다시리는 부친인 토곤에 의해 다와다시리의 부친 부다시리와 1421년에 혼인했는데, 이는 중국 서북지역으로의 팽창을 염두에 둔 토곤의 포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443년 무렵에는 관서 7위의 각 수장들에게 이들보다는 오이라트의 약탈과 침공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에센은 하미를 장악한 후, 하미의 장악에 있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던 혼인정책을 사주와 적근몽고에게 강요했다.<sup>35</sup> 이에 대해 명은 처음에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나 1443년에 에센이 하미, 적근, 사주 등을 침략하고, 간쑤 서외 황야에서 몽골리아로 향하는 통로였던 예지나에 적구(賊寇)가 출몰했으며, 에센이 관서 7위의 추장에게 관직을 주면서 대동과 영하로 진출할 것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자<sup>36</sup> 심각성을 느끼고는 여러 위소에 사신을 보내어 오이라트에게 대항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주와 적근 등의 위소 세력들은 저항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오이라트가 하미를 장악하고 다른 위소로 영향력을 펼칠 때, 위소의 일부 세력, 특히 명이 세운 추장이 아니었던 이들은 멩케부카 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오이라트와의 연합을 모색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1446년에 반마사걸이 오이라트의 에센에게 봉사한다는 첩보가 하주위를 통해 명에게 보고되었다.<sup>37</sup> 그는 본래 한동위 출신이나, 부친인 엄장(奄章)의 시기부터 한동위의 여타 세력과 화목하지 못해 사주 근처로 도망하여 살았던 인물이었다.<sup>38</sup> 또한 사주위의 추장인 곤즉래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남가(喃哥)가 명에 의해 사주위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의 동생 쇠남분(鎖南奔)도 오이라트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그들에게서 왕의 작위를 받기도 했다.<sup>39</sup>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불안해했던 명은 이제껏 사주에서 수차례 관동으로의 이주를 요청했을 때마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1446년에는 사주위에게 서녕의 사찰인 소발화사(小鉢和寺) 옆으로 이주할 것을 권유했다. 사주위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그중에 일부는 오이라트로 달아나거나 한동위로 달아났으므로 명은 나머지 세력을 압박하여 감주 남산 아래

35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八年/十月/十九日.

36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八年/十一月/十六日.

37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十一年/八月/二十六日.

38 明史, 西域傳·罕東左衛.

39 英宗睿皇帝實錄, 正統九年/十二月/十九日;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十一年/九月/十一日.

농목지로 데려왔다.<sup>40</sup> 이로서 관서 위소 중에 사주위가 처음으로 명맥을 다하게 되었다.

이처럼 위소의 일부 세력 중에 명이 세운 각 위소의 대표 추장이 아닌 이들이 멩케부카나 오이라트의 에센 등과 연합했던 이유는, 이 방법만이 그들이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명이 위소를 설치하고 인신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특혜를 제공할 때, 그 수혜를 독점하는 것은 명이 임명한 추장이었다. 그러나 명 외에 새로운 권력이 이 일대에 등장하자, 추장 이외의 세력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관서 7위의 체계모니를 제 것으로 삼기 위해 기회를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전술한 네 위소보다 남쪽에 위치하여 몽골리아 제 세력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처럼 보이는 샤릭위구르 위소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공교롭게도 샤릭위구르에서는 전술한 시점보다 이른 1424년에서 1432년 사이에 명과 외국의 사신을 약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전술한 사주위의 약탈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간주되어 명의 군대가 이들을 직접 토벌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해 샤릭위구르 위소의 상황을 전술한 네 위소의 상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전술했듯이 샤릭위구르에는 3개의 위소, 4개의 부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세력은 안정왕과 곡선위의 수장이었다. 샤릭위구르 위소가 재개설된 후, 샤릭위구르는 바투(把秃)라는 토번 장군의 공격을 한차례 더 받았는데, 이때 하산(哈三)을 비롯하여 산즉사(散即思), 삼즉(三即) 등 안정위의 지휘들이 안정위와 곡선위를 분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1406년에 곡선위가 분리되었고 전술한 삼즉이 곡선위의 지휘사, 산즉사가 부지휘사로 임명되었다.<sup>41</sup> 그리고 두 위소는 각자 첫 위치보다 조금 동쪽인 칭하이성 방향, 즉 안정위의 경우에는 고아정(苦兒丁), 곡선위의 경우에는 약왕회(藥王淮)라는 곳으로 치소를 옮겼다. 그렇다면 안정위와 곡선위의 분리가 왜 토번 장수의 공격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을까. 『명실록』에서 기록한 그들의 요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에 안정과 곡선 두 위소가 설치되었다가

<sup>40</sup> 英宗睿皇帝實錄, 正統十一年/九月/十一日.

<sup>41</sup> 明史·西域傳.

도르제빠의 공격으로 인해 곡선위가 안정위의 거주지인 아진의 땅[阿真之地]으로 병입되었는데, 여전히 바투의 공격으로 안녕을 되찾을 수 없으니 다시 곡선위를 설치하고 치소를 옮기기를 청했다고 한다.<sup>42</sup> 이는 샤릭위구르의 곡선위와 안정위가 한 목지에 자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좋지 않음을 암시한다. 또한 이러한 공존 상황은 토번 장군의 침입까지도 야기하는데, 이때 위소의 분리를 요청한 이들이 곡선부 소속인 것으로 보아 토번 장군의 표적은 주로 곡선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양측이 갈라진 후 1413년에 옛 안정왕의 후손이 돌아와 안정왕으로 복위되었는데, 그는 복위 전에 영장(靈藏)에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다.<sup>43</sup> 이곳은 명대 찬선왕(贊善王)으로 임명된 티베트 승려의 봉지로, 찬선왕이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명에 의해 왕에 임명될 정도로 상당한 세력을 지녔음에는 분명하다. 이 안정왕은 과거 곡선위의 지휘에 의해 살해된 부얀티무르의 손자로, 부얀티무르가 살해되고 뒤이어 벌어진 혼란을 피해 티베트로 피신하여 특정 교단의 비호 아래에 살다가, 복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때 명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복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전술한 토번의 공격과 연결지어 보면, 안정왕을 비롯한 안정위는 티베트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곡선위는 그렇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곡선위는 이름 그대로 서역 오아시스 도시 중에 하나인 쿠차에서 유입된 이들이 주축이 된 세력으로, 티베트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안정위와는 사뭇 다른 성격을 지닌 세력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안정왕이 곡선위 지휘에게 살해된 이후 곡선위 출신의 삼측과 산측사가 샤릭위구르 전체를 장악하자 안정왕을 지지하는 티베트 측에서 샤릭위구르를 공격했던 것이고, 곡선위 측에서는 양측이 분리되는 것만이 티베트 세력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긴 것이다.

<sup>42</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四年/三月/十七日.

<sup>43</sup> 그가 머무른 영장은 명에 의해 1404년에 영장 관정국사(灌頂國師)로, 1407년에는 찬선왕으로 임명된 승려 최백겔젠(著思巴兒監藏)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최백겔젠이 어떤 교단에 속했고 어디에 위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체로 감자장족자치주(甘孜藏族自治州)에 있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黃玉生, 1995: 85).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 후 샤릭위구르는 약 10년 동안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424년 무렵 전술한 사신 약탈 및 살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정황은 대략 이와 같다. 1424년 영락제가 중관(中官) 교래희(喬來喜), 등성(鄧誠)을 위짱(烏斯藏)의 사신으로 보냈고,<sup>44</sup> 그들은 가는 도중에 지금의 칭하이성 남서쪽에 흐르는 필력술강(畢力朮江)에 머물렀다.<sup>45</sup> 이때 안정의 지휘 하산<sup>46</sup>의 손자인 생계(散哥)와 곡선 지휘인 산즉사 등이 사신을 공격하여 살해하고 패물 등을 빼앗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하필 영락-홍희제의 교체시기에 발생하여, 홍희제는 즉위한 직후 섭서의 도지휘 이영(李英)에게 칙서를 내려 서녕 및 주변 서번의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도록 했다. 이들은 쿤룬 산맥 너머 서쪽 아령할(雅舍闐)이라는 지역에서 안정위의 세력을 만나 격퇴했고, 곡선은 더 먼 곳으로 달아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sup>47</sup> 명에서는 1426년에 안정위와 곡선위를 효유하여 원래의 생업으로 돌아가게 했고, 2년 후에는 재차 고명을 주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우선 명이 티베트에 법왕 및 왕의 작위를 수여할 때나 보시 예물을 파견할 때, 주로 환관을 파견하여 외조(外朝)의 정식 체계 바깥에서 왕래했다. 그리하여 1424년 당시에도 환관이 파견되었는데, 그들은 위짱 및 네팔(尼八剌)로 파견되었으며 위짱에서 온 티베트의 사신도 동행한 상태였다.<sup>48</sup> 한편 이 사건을 주도한 것은 전술한 안정위의 지휘 하산의 손자 생계와 곡선위의 지휘 산즉사였는데, 하산과 산즉사는 앞서 살펴보았던 안정왕의 공위시기에 함께 샤릭위구르를 이끌던 이들이었다. 다만 이 사신 살해 사건에 샤릭위구르의 모든 이들이 가담한 것은 아니어서 안정왕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정으로 나아가 청죄하면서도

<sup>44</sup> 두 환관은 일전에도 대승법왕으로 임명된 사카파 라강 계열에 각기 파견되었던 사례(1417, 1418)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사카파에 파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sup>45</sup> 지금의 칭하이성 위수시 치다현(治多縣)에 흐르는 강. 이 강은 안정왕이 머물렀던 영장 부근에 위치한다. 곡선위와 안정왕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곡선위가 안정왕을 후원했던 티베트계 부족세력들과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다.

<sup>46</sup> 이 인물의 이름은 이전 기록에는 삼으로 되어 있었다.

<sup>47</sup> 宣宗章皇帝實錄, 洪熙元年/八月/二日.

<sup>48</sup> 仁宗昭皇帝實錄, 永樂二十二年/九月/二十八日.

사신을 공격한 악의 우두머리(首惡)는 곡선위의 산즉사와 안정위의 하산투메드(哈魯土滅禿)라 지목했으며,<sup>49</sup> 안정위 및 곡선위에 속한 일부 부락 역시 명이 파견한 군대 측에 서서 그들을 공격하기도 했다.<sup>50</sup>

1427년에 홍희제는 서녕위의 동지(同知)를 이용하여 멀리 달아난 산즉사를 초무하였고, 4만 2,000여 장(帳)이 본업으로 복귀하였다. 이때의 기록에 따르면 산즉사는 윗빠(烏思巴)라는 인물과 서로 원수여서 적을 살해하다가 조정의 사신을 마주쳤고, 그들까지 약탈하다가 사신을 살해한 것이라고 했다.<sup>51</sup> 안타깝게도 윗빠에 대한 더 이상의 정보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명실록』 영락 4년에 서번에서도 달한 여러 부족 세력 중에 향장족(香藏族)의 두목 윗빠라는 인물이 한 차례 등장하므로, 그가 어느 지역에 거주했는지 어떤 인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티베트 부족장 중에 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산즉사는 티베트 세력과 충돌을 빚었다가 티베트로 향하는 명의 사신까지 살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sup>52</sup>

이와 관련하여 잠시 곡선위의 종교적 색채에 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명대 사서는 안정왕의 사신이 내조(來朝)할 때 함께 사신을 파견하는 안정위의 국사(國師)에 대해서 꼬박꼬박 그 이름을 명기하고 있지만,<sup>53</sup> 곡선위에 관해서는

<sup>49</sup> 宣宗章皇帝實錄, 洪熙元年/八月/六日; 하산투메드는 과거 산즉사, 삼즉과 더불어 샤리위구르를 이끌던 하산에 비정할 수 있다.

<sup>50</sup> 예를 들면 1432년 황제에게 상주한 곡선 지휘 나나한(那那罕)은 과거 안정의 병사가 산즉사를 토벌할 때 자신의 두 딸과 네 아들 및 지휘 생계를 비롯하여 몇몇 라마의 가속 500명을 노략했는데, 산즉사는 이미 사면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가속은 돌아오지 못함을 고했다. 이에 황제는 안정왕 및 지휘 등에게 나나한은 무고한 자라고 하며 약탈한 이들을 되돌려 보내도록 했다(宣宗章皇帝實錄, 宣德七年/八月/十六日). 이를 통해 곡선위 내에서도 산즉사의 측에 서지 않은 지휘, 즉 부락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명사」 「서역전」의 안정위 항목에는 안정위의 지휘 생계가 명의 샤리위구르 토벌 당시 한동위와 함께 동원되었는데, 한동위가 이를 어기고 오히려 생계의 군대를 약탈했다고 한다. 이 생계는 이후 안정왕과 더불어 안정위에서 세습지위를 유지했던 토관이다. 기록에 따르면 한동위는 원정에 가담한 후에도 곡선위가 두렵다는 이유로 서녕위 근처에 거주하다가 명에 의해 본토인 관서로 돌아가기도 했다. 이것으로 보아 이 당시에 함잡과 산즉사의 사신 살해에 관한 관서 7위의 입장은 위소마다, 아니 위소 아래의 부락마다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안정의 지휘인 함잡의 손자가 안정왕보다는 곡선의 지휘인 산즉사와 함께 활동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sup>51</sup>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二年/十一月/十七日.

<sup>52</sup> 太宗文皇帝實錄, 永樂四年/十一月/十四日.

<sup>53</sup> 기록에 등장하는 안정위 국사는 다음과 같다. 선덕 원년, 안정위의 선사(禪師) 상촉영점(賞觸領

한 번도 국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물론 곡선위는 상기 사건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명과의 사신 왕래 자체가 단절되었으므로 안정위에 비해서는 사신 파견의 사례가 많지 않다. 그러나 관서 7위 전체를 아울러 살펴봐도 곡선위는 유독 티베트 불교와의 접점이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티베트 세력과의 갈등 사례만 두드러진다.<sup>54</sup>

한편 명대에 완성된 『숙진화이지(肅鎮華夷志)』의 기록을 보면, 하미를 구성하는 3종 이민족(회회, 위구르, 합랄회) 중 하나인 합랄회(哈喇恢/灰)에 대해 “투르크 종족인 합랄회라는 이들은, 본래 안정왕 부의 예속인이며, 원의 몽골족 (중에) 무릇 회이(回夷)와 같은 풍속을 갖게 된 이들인데, 비록 머리를 자르고 티번을 쓰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회회의 씨족이라 여겼다.”라고 설명했다(楊富學, 2018: 9). 이 기록은 안정왕 휘하에 몽골계 무슬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안정왕은 티베트 교단의 보호를 받을 만큼 티베트 불교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므로 상기 기록은 곡선위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짐작된다.<sup>55</sup>

占)이 국사에 임명되었고, 다음 해에 고명과 은인을 받았다. 그는 선덕 5년과 정통 2년에도 다른 승려들과 함께 내조했는데, 정통 3년에는 안정국사가 노환에 걸려 그 제자 섭탈장복(攝剌藏卜)가 상주를 올려 계승을 요구했으나 명에서는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정통 4년에는 상족영점이 직접 왔으나 정통 7년 등에는 그가 왕래했다는 기록은 없고 대신 안정왕의 사신을 통해 명에서 그에게 예물을 사여했다. 그 후 정통 9년에 안정왕이 국사 섭탈장복을 파견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 국사가 사망하고 그 제자가 국사의 자리를 얻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국사는 정통 11년에도 조정에 왕래했으며, 천순 8년에는 하미의 문제와 관련하여 하미의 사신이 안정의 상황에 관해 당시 서녕에 있던 안정의 관정국사인 섭탈장복에게 물어보는 기록도 있다. 한편 성화 16년에는 안정왕이 국사 도르지 린진(朵爾只領眞)을 파견하여 새로운 국사가 들어섰음을 알렸으며, 성화 19년, 홍치 3년에도 안정왕은 국사 도르지 린진을 파견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1426년 무렵부터 1490년까지 안정에는 세 명의 국사가 대를 이어 계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sup>54</sup> 곡선위의 사신은 주로 다른 사신과 함께 왔으나, 유일하게 한 차례 단독으로 사신을 파견한 적이 있는데 그는 회회인 아흐마드 물라(哈麻滿刺)였다(太宗文皇帝實錄, 永樂七年/閏四月/十二日).

<sup>55</sup> 『고창관과(高昌館課)』나 『명실록』에서는 합랄회가 주로 지역명(地面)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명실록』의 홍치 4년 11월(1491) 기록에 따르면 합랄회는 하미위 주민들이 종종 피신해 있었던 고육성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다(孝宗敬皇帝實錄, 弘治四年/十一月/二十四日). 『고창관과』에서는 합랄회 지역에서 보내온 3개의 상주문을 수록했는데 그 발신인은 각기 섬득극(陝得克), 마흐무드왕(馬哈木王), 에센부카왕(也先卜花王)이었다. 여기에서 에센부카왕은 동 사료에 수차례 등장하는 모굴 칸국의 에센부카 칸(r.1431-2~1461-2)으로 추정되며, 마흐무드 왕은 에센부카 칸의 형인 유누스 칸의 맏아들, 마흐무드 칸으로 추정된다. 같은 사료에서 유누스가 스스로를 하미지역의 유누스 왕으로 표시하거나, 에센부카 본인이 일리발릭, 투르판, 합랄회 지역에서 각기 상주문을 보낸 적이 있었

종합해 보면 14세기에 하미나 돈황 및 샤리위구르의 목지 등 지금의 간쑤-칭하이-신장위구르자치구 교계지역은 티베트 불교와 이슬람 문화권의 접점이었고 티베트 불교도들도 있지만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들도 병존한 상태였다. 특히 같은 세력 내에도 다른 종교를 지닌 무리들이 공존하기도 했는데, 샤리위구르 내에서도 티베트 세력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어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티베트로 피신하기도 했던 안정왕이 다스렸던 안정위는 대체로 티베트 불교문화권에 속하는 반면, 샤리위구르 강역의 서쪽에 위치한 쿠차 출신으로 구성되었던 곡선위의 구성원들은 예부터 이슬람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쿠차는 모굴 칸국의 이슬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진 카타키 수피교단의 거점이기도 하다.

공교롭게도 이와 비슷한 시점에, 페르시아어 사료에 다시 한 번 샤리위구르가 등장한다. 이 시기는 모굴 칸국의 우와이스 칸 시기인데, 그는 1418년 나크시 자한(Naqsh-Jahān)을 살해하고 등극했으며, 베쉬발릭을 떠나 모굴 칸국의 본래 근거지인 일리(Lily)로 진출했다. 그러나 그는 동쪽으로는 한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오이라트의 타이핑, 서쪽으로는 칸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였던 삼촌인 시르 무함마드(Shīr Muḥammad) 등 양쪽에서 강한 압력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이라트의 패권을 장악한 토곤이 1424년에 정적인 타이핑을 공격하자 타이핑의 잔존 세력은 간쑤 지역으로 달아났고, 1425년에는 티무르조의 울룩베이 시르 무함마드를 격퇴하면서 그는 일리 유역을 되찾았다. 그런데 우와이스 칸이 시르 무함마드와 갈등을 빚을 무렵, 『라시드사(Tārīkh-i Rashīdī)』에 의하면 그는 ‘코사크(Quzzaq)’ 관습에 따라 룽, 카탁, 샤리위구르 지역을 떠돌았다고 한다. 또한 그가 시르 무함마드 칸의 사후 재등극한 다음에도 매 해마다 타림, 룽, 카탁으로 낙타 사냥을 나섰고, 농경을 위해 투르판(土魯番)에 관개시설을 설치했다고 한다(Dughlat, 1996: 39). 실제로 『명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투르판의 도독첨사 엔케르찰(尹吉兒察)을 비롯하여 여러 투르판 지배층들이 우와이스에 의해 밀려나

으므로 『고창관과』의 출신 기록과 본래의 활동 거점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이 기록들을 본문의 『속진화이지』기록과 조합해 보면, 본래 합랄회라는 지명이 존재했는데, 안정왕이 약화되었을 무렵 안정왕 치하에 있는 몽골계 무슬림 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자리했다가 그곳의 이름을 따서 ‘합랄회’로 불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으로 귀부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즉, 우와이스는 그의 조부인 히즈르 호자와 마찬가지로 모굴리스탄 초원에서 세력을 상실했을 때, 세력을 보강할 새로운 근거지를 찾아 텐산 남로 오아시스 지대 동부, 샤릭위구르의 서쪽 끝을 찾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동·서 양방향의 위협이 사라져 모굴리스탄을 회복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일대를 중요시했는데, 이는 그의 아들인 에센 부카(Isān-Būghā) 칸이 투르판 출신 위구르계 아미르를 중용하다가 결국 모굴리스탄 초원 출신 아미르들의 반발로 인해 칸의 자리에서 잠시 축출된 사건과 이어진다.

비록 모굴 칸과 곡선위 주장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 주는 기록은 없으나, 적어도 모굴 칸이 이 시기에 샤릭위구르로 들어와 세력 회복을 위한 군사 징집(코사크)에 힘썼던 것은 사실이다. 이때 모굴 칸이 의탁하기 가장 쉬운 부족은 샤릭위구르 중에서도 서쪽에 위치하고, 종교가 같은 곡선이었을 것이다. 샤릭위구르 내에서 안정왕에 비해 항상 2인자일 수밖에 없었던 곡선위는 그들을 둘러싼 기존 세력인 명이나 티베트가 아닌 새로운 세력, 모굴 칸국의 세력이 등장하자 이들을 등에 업고 기존 세력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한편 1427년에 명의 초무를 받아 본업에 복귀했던 곡선위는, 이번에는 서역에서 돌아오는 중국 사신 및 서역의 공사 등을 수차례 약탈했다.<sup>56</sup> 이에 황제는 1430년에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공격하게 했고, 산즉사는 달아났으나 그의 도당인 툽토부카(答答不花)가 붙잡혀 명으로 송환되었다.<sup>57</sup> 바로 다음 해에 산즉사는 명으로 사신을 보내어 속죄했는데, 명은 곡선위 및 아단위에게 옛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했다. 이때 명이 곡선과 아단에게 되돌아가라 명한 옛 땅은 그들이 1406년부터 1424년까지 머무르고 있었던 칭하이성 서북 일대가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가리키는 그 장소였다. 즉, 아단위의 지휘에게 ‘회회의 경계에 있는 아단의 옛 성’으로 되돌아가라는 명을 내리는데 이곳이 아단위의 지휘 본인의 출생지인 첩리곡(帖兒谷)에서도 한 달거리라고 한 것으로 보아 실제 서역남로에 위치한 호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sup>58</sup> 이 명령에 따르면 곡선 역시 쿠차로 돌

56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五年/六月/十五日.

57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五年/十二月/二十七日.

58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七年/正月/二十九日.

아가야 했다. 15세기 초반, 티무르의 손자 이스칸다르(Iskandar)가 모굴 칸국을 원정했을 때 쿠차와 호탄은 그의 공격 범위 중 가장 동쪽 끝에 해당했으므로, 명이 곡선과 아단을 옛 땅으로 돌아가라고 한 명령은 곧 명의 위소 범위이자 티베트문화권 바깥으로의 추방을 의미한다.

이에 아단위는 아단의 옛 성이 너무 머니 본래의 거주지로 되돌아가겠다고 청했고 이 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 양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본래의 거주지’는 1406년 이전에 그들이 머무르던 아진천 일대에 해당한다. 1474년에 투르판의 지방군주였던 술탄 알리가 하미를 공격할 때의 기록에 따르면, “한동위가 서쪽으로 체르첸 및 곡선위와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안정과 접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sup>59</sup> 체르첸은 서역남로의 동안(東岸)에 위치해 있고, 한동위는 칭하이성 서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때 곡선위의 위치는 원말부터 1406년까지 자리했던 롭-카탁 부근, 지금의 간쑤-신장성 경계의 튀창현 일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편 곡선위가 공격한 ‘서역’사신이 당시 명의 이서 세력 중에 어느 곳을 의미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곡선이 모굴 칸국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고려하여 당시 모굴 칸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도록 한다. 15세기 초반에 모굴 칸은 주로 모굴리스탄 초원 및 사막 북로의 몇몇 도시에 자리했고, 모굴 칸국의 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두글라트 부는 사막 남로의 여러 오아시스 도시에 그들의 유르트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우와이스 칸의 즉위 무렵 티무르 조의 미르자 울룩벡(Mirzā Ulugh-big)이 사막 남로의 오아시스 도시 중에 가장 서쪽에 위치한 카쉬가르를 차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두글라트 부 내에서 칸 후보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여파이다. 두글라트 부의 수장이자 6명의 칸을 세웠던 후다이다드는 자신의 손자인 사이드 알리(Sayyid 'Alī)와 서로 다른 칸 후보를 내세우며 대립했는데, 결국 사이드 알리가 선택한 우와이스 칸이 시르 무함마드 칸을 내쫓고 칸의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이에 후다이다드가 티무르조로 나아가 미르자 울룩벡을 끌어들이 세력을 되찾고자 했고, 결국 미르자 울룩벡이 군대를 파견하여 카쉬가르를 차지했다. 그는 처음에는 두글라트 부 아미르

<sup>59</sup> 憲宗純皇帝實錄, 成化十年/十月/七日.

에게 통치를 맡겼으나 결국 티무르조의 소속 부족인 바를라스(barlas) 부의 아미르가 이곳을 차지하여 근 40년 동안 지배했다.<sup>60</sup> 그러므로 이 시기에 헨산 북부 일리발릭(亦力把里)에 있던 모굴 칸국과 미르자 울룩백이 장악한 헨산 남부, 특히 카쉬가르 일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으며, 결국 1430~1431년 무렵 우와이스 칸은 티무르조의 미르자 울룩백이 파견하여 모굴리스탄으로 온 몽골 제국의 후예 사투칸(Sätüq Khān)에 의해 살해되었다.<sup>61</sup> 이후 모굴 칸국 내에서는 우와이스 칸의 두 아들인 에센 부카와 유누스(Yünus)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는데, 에센부카가 모굴 칸에 등극하자 유누스는 울룩백에게 투항했다.

전술한 곡선위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들이 마주쳤던 서역 사신은 주로 서역남로의 도시에서 파견했거나 그곳을 거쳐 이동한 사신이었을 것이며, 이들은 카쉬가르를 장악하고 있었던 울룩백이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곡선위가 서역으로부터 오는 사신을 공격한 것은, 당시 모굴 칸국과 대립하고 있었던 티무르조 울룩백 휘하의 사신을 공격한 정치적 행위라 볼 수 있다.

본래 샤리위구르는 칭하이성의 서부와 서역 남로의 동남단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여타 관서 위소와는 달리 몽골보다는 티베트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 안정왕이 샤리위구르의 혼란의 시기에 티베트에 의지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이 지역에 15세기 전반에 모굴 칸국이라는 또 다른 세력의 영향력이 나타나자, 샤리위구르의 패권을 차지하지 못한 곡선위 측에서 새로운 세력과의

<sup>60</sup> 티무르조의 사료에 의하면 후다이다드가 울룩백에게 투항했던 시기는 822년 사반월(1419. 8~9.)이며 실제 울룩백의 어전으로 나아간 것은 823년 주마다 알 타니 월 25일(1420. 7. 6.)이다. 또한 후다이다드가 내세운 시르 무함마드 칸 역시 같은 해 라잡월에 울룩백을 찾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티무르의 누케르가 카쉬가르에 파견되어 있으므로, 이 시기에 카쉬가르는 이미 간접적으로 티무르조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카쉬가르에 울룩백의 누케르가 파견되어 있었던 이유는 본래 안디잔에 있었던 티무르의 손자이자 우마르 셰이흐의 아들인 아미라크 아흐마드가 샤루흐에게 저항하여 모굴리스탄으로 달아났기 때문이다. 그가 모굴리스탄으로 향한 것은 818년(1415) 이전의 일이다. 이후 그는 샤루흐의 부름을 받고 819년경 후라산으로 가면서 자신의 누케르인 셰이흐 알리 타가이를 대리인으로 두었는데, 그가 울룩백에게 복종하였으므로 울룩백이 자신의 아미르들을 파견하여 그의 자리를 대체하도록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우와이스가 칸으로 등극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sup>61</sup> 宣宗章皇帝實錄, 宣德七年/十月/十五日; 이 기록은 1432년의 기록이나, 우와이스의 왕모는 직전 해에도 우와이스 대신 사신을 파견한 바 있으며, 모든 일이 발생한 후에야 그 전말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1430~1431년 즈음에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접촉 및 연대를 통해 안정위를 증가하는 세력을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정리하자면, 15세기 전반에 관서 위소들의 북·서에 위치한 몽골 세력들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력한 세력을 발휘했다. 이때 명의 임명을 받아 각 위소를 총괄해왔던 주장들은 여전히 명에 충성을 바쳤으나, 그 외에 다른 무리들은 새로 등장한 세력과 결탁하여 명과, 명이 임명한 주장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접근해 온 세력 중에 최후의 승자는 에센 타이시의 오이라트였고, 그의 압력 하에 관서 7위중에 사주위가 최초로 폐지되었다. 그렇다면 15세기 후반, 특히 에센 타이시가 사망한 후에 관서 7위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 IV. 15세기 말~16세기 초, 모굴 칸국의 동진과 위소의 폐지

오이라트 에센의 세력의 정점은 1449년에 발생한 토목보(土木堡)의 변이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에센의 권력이 정점을 거쳐 쇠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토목보의 원인, 경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본 글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몽골리아 초원 및 가옥관 이서지역까지 호령했던 에센이 1454년에 사망한 후, 그가 차지했던 몽골리아-중앙아시아 초원 일대는 다시 할거상황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에센 치하에서 팽창할 대로 팽창했던 오이라트의 세력은 그 내부가 여럿으로 나뉘어 병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 그 형세는 줄어들지 않았다. 예를 들면 1459년에 하미로 남하하여 충순왕의 모친이자 에센의 누이인 눈다시리와 연합했던 에센의 동생 백도왕(伯都王)과 극실독왕(克失秃王),<sup>62</sup> 비슷한 시기에 투르판에서 하미로 이주하여 눈다시리를 포로로 잡고 하미를 궁지에 몰아넣었던 벡 아르슬란(亂加思蘭)은 모두 오이라트 출신이다.<sup>63</sup> 한편 1469년에 그를 하미에서 몰아낸 배역살합(拜亦撒哈) 역시 오이라트에서 왔는데, 그를 몽골리아에서 몰아낸 것은 에센의 아들 아스티무르(阿失帖木兒,

<sup>62</sup> 英宗睿皇帝實錄, 天順三年/八月/一日.

<sup>63</sup> 英宗睿皇帝實錄, 天順三年/正月/二十四日; 펠리오에 의하면 그는 중앙아시아에서 온 벡 아르슬란이란 인물인데(宮脇淳子, 2000: 148), 『황금사』는 그를 오이라트인 베게르센 타이시라 명시했다.

『라시드사』의 아마산지 타이시(Amāsānji Tāyshi)이다.<sup>64</sup>

『라시드사』의 기록에 따르면 아마산지 타이시는 자신의 두 아들, 이브라힘 왕(Ibrahim Üng) 및 일야스 왕(Ilyās Üng)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 분리되었는데, 이때 18만 명이 두 아들과 동행했고 아마산지 타이시와는 30만이 동행하여 모굴리스탄 초원으로 향했다고 한다(Dughlat, 1996: 56). 『명실록』에는 아마산지 타이시의 두 아들로 추측되는 인물들에 관한 후속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기사에 따르면 그들은 1490년대에 하미 부근에서 야메크린(野乜克力) 부의 왕으로 살고 있었다.<sup>65</sup> 그중에 이브라힘 왕은 『라시드사』 및 명의 여러 기록에 남아 있듯이 하투로 진출하였다가 다얀 칸에게 패배한 후 칭하이로 달아났으며, 이후 30년 가까이 칭하이 일대를 휩쓸어 명에 의해 ‘서해의 도적’, 혹은 ‘칭하이의 대추장’으로 불렸다.

이렇듯 아스티무르와 반목한 자녀들 외에, 그의 뒤를 이어 오이라트의 수령이 된 아들 쿠시(克失) 역시 하미 주변에 주둔했다. 더욱이 그의 시대에는 오이라트의 모든 수령들이 하미 주변에서 ‘머무르며 유목(屯牧)한다’는 기록이 등장했으며,<sup>66</sup> 그와 그의 동생들은 하미를 넘어 관서 위소 일대에 영향력을 펼쳤다. 우선 쿠시 자신은 백 아르슬란을 살해하고 타이시가 되어 다얀 칸 계열을 칸으로 옹

<sup>64</sup> Serruys(1977: 366); 아마산지 타이시는 에센 사후 모굴리스탄 초원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므로, 에센 부카 칸이 일리발릭에서 축출되었을 때 각지로 흩어졌던 모굴 칸국의 구성 부족 중에 추라스, 바아린 등은 그에게 피신하기도 했다. 한편 1460년대 말에 유누스 칸이 아부사이드 미르자의 도움을 받아 모굴리스탄 초원으로 귀환하고자 했을 때에도 그 때문에 다시 타슈켄트로 달아나야 했다. 유누스 칸은 아마산지 타이시가 자신의 ‘기초의 유르트’로 귀환한 이슬람력 877년(1472~1473)에야 다시 모굴리스탄 초원으로 귀환할 수 있었다(Dughlat, 1996: 61). 한편 『명실록』 및 『황금사』에 의하면 그는 1466년에 우량하이 태녕위의 모리해(毛里孩, 마울라카이 웡)와 대립관계에 있어 그를 하투에서 몰아내고자 했다(憲宗純皇帝實錄, 成化二年/九月/十三日). 그러나 1468년에 ‘부중의 난리’를 만났고, 본문에서 언급된 두 아들인 이브라힘 및 일야스 왕과 분리되어 모굴리스탄 초원 방향으로 서진했다가 위에 언급한 대로 1472-3년에 다시 오이라트의 원래 영역인 서몽골로 돌아간 듯하다. 다만 그 이후 그에 관한 기록은 사라졌다가 1478년에 ‘이미 죽었다’라고만 언급된다.

<sup>65</sup> 명실록에 의하면 1492년에 하미의 야메크린 부 독복화태복(禿卜花台卜)의 ‘이웃 부족’(鄰部)으로 일야스왕(亦刺思王)과 이브라힘왕(亦不刺因王)이 두목, 평장, 지원 등과 함께 명 황제에게 상주를 올렸으며(孝宗敬皇帝實錄, 弘治五年/十月/十八日), 1495년에는 그 두 왕 및 멩케 왕(滿哥王)이 ‘야메크린 부의 수장’으로 등장한다(孝宗敬皇帝實錄, 弘治八年/六月/三日).

<sup>66</sup> 憲宗純皇帝實錄, 成化二十年/十月/十日.

립했던 오이라트의 이스마일 타이시와 연합하여 성화 22년(1486)에 과, 사주 공격을 시도했으나, 직후에 다얀칸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그 후 오이라트 부는 쿠시의 동생 아사(阿沙)를 타이시로 세웠는데, 그의 동생인 알리쿠드(阿力古多)는 아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신의 무리를 이끌고 간쑤를 약탈했으며, 하미의 도독인 한신(罕慎)을 위협하여 화친을 맺고 중국에게 사절을 파견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보다 한 세대 아래인 양한왕(養罕王), 소열독(小列禿), 복육왕(卜六王) 역시 하미 부근에 자리하면서 관서 일대에 영향력을 떨치고 있음을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몽골리아 초원 내에서 다얀칸이 성장하여 결국 몽골리아 초원을 통일함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강력한 세력을 구가하던 에센이 사망한 후 오이라트의 여러 세력은 15세기 하반기 내내 줄지어 하미를 위시한 간쑤 새외 황야로 남하하였고, 점차 관서 위소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다 1480년대에 다얀 칸이 몽골리아 초원을 장악하면서 오이라트의 세력은 간쑤 새외 황야 및 중앙아시아로 완전히 축출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1480년대 후반에 모굴 칸국이 위구리스탄(Uyghuristan) 지배를 회복하면서, 전술한 유누스 칸의 아들 아흐마드(Ahmad) 칸이 투르판을 거점으로 삼아 하미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의 아들 만수르(Mansūr) 칸이 하미를 차지하게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관서 위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모굴 칸국의 동진과 오이라트 세력의 남하는 도미노처럼 여러 관서 위소에 압박을 가하여 결국 16세기 초에 모든 위소가 폐지되는 결말을 맞이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 대해 각 위소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의 하미에 관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있다. 이에 따르면 투르판의 하미 침입은 크게 두 차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473년 술탄 알리(魯檀阿力)의 단기 침입, 두 번째는 모굴 칸국의 아흐마드 칸과 그를 이은 만수르 칸의 장기 침입이다. 첫 번째 침입 때에는 당시 하미의 지도자인 눈다시리 및 명에서 파견된 사신이 투르판에 구금되었으며, 이에 명에서는 적근, 한동, 그리고 하미 주변에 자리한 메크리 부<sup>67</sup> 등을 동원하여 진격했으나

<sup>67</sup> 이 부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Henry Serruy의 연구가 있는데, 이 부족을 원대의 여러 기록에서

큰 소득 없이 끝났고 오히려 술탄 알리가 기타 위소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sup>68</sup> 하미의 잔존 세력은 과거 사주위가 이용하기도 했던 둔황 근처의 고육성으로 이주했다가 1482년에 투르판의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 하미를 수복했는데, 1488년에 잔존 세력을 이끌던 충순왕 한신이 투르판을 수복한 모굴 군주 아흐마드 칸에 의해 살해되면서 다시 모굴 칸국에 점거되었다. 그 이후에도 아흐마드와 그의 뒤를 이은 만수르 칸 등이 하미를 공격했다가 명과의 조공무역을 위해 물러서는 과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가, 만수르 칸이 1513년에 충순왕 및 하미의 회회 도독 사이드 후세인(寫亦虎仙)과 연합하여 하미를 차지하였고, 이때 하미의 위구르 도독인 엔케볼라드(奄克孛剌)는 숙주로 달아나 명의 영내로 들어왔다. 이후 만수르 칸이 잠시 하미성 및 금인 등을 명에 돌려준 적도 있었으나 결국은 1524년부터 양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만수르 칸이 숙주와 감주를 침공하기 시작했고, 1529년에 명은 공식적으로 투르판의 조공을 허락하되 하미 점령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이에 하미는 회회 도독이 장악하여 투르판에 복속했고, 충순왕의 후손은 모굴 칸국의 강역인 악수성에 머물렀으며 그 외의 하미를 구성하던 여러 세력은 숙주로 이주했다. 1547년에 완성된 장우(張雨)의 『변정고』 「서강족구(西羌族口)」에 등장하는 숙주의 여러 거주 세력에 관한 기록에 하미위신합랄회(哈密衛新哈喇灰), 위구르, 하미위구합랄회(哈密衛舊哈喇灰) 등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하미에서 투항하여 숙주에 거주하게 된 이들이라 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정덕 11년(1516)에 투항하였다고 한다(趙英, 2011: 245-248).

모굴 칸국은 이처럼 하미는 물론이고 관서의 다른 위소 및 숙주까지 공격했는데, 이때 관서 위소들은 하미처럼 모굴 칸국에 복속하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 영역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2장에서 사주위의 구성원들이 사주를 버리고 가옥관 동쪽의 감주 및 숙주로 이주했던 것처럼, 이들도 가옥

등장하는 메르키트와 연결 짓는 기존의 연구를 부인하고 위구르 땅의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베크린, 혹은 메크린 부와 연결 지었다. 제일 이른 시기의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예지나 지방에 거주했었는데, 15세기 후반에는 간쑤 경계에서, 이후에는 하미에서 발견되었다(Serruys, 1963: 438). 요컨대 메크린 부는 관서 일대를 여기저기 이동하던 토착 부족이었는데, 이후 하미에 자리했고 본문에서 등장한 이브라힘 왕에 예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sup>68</sup> 憲宗純皇帝實錄, 成化十年/閏六月/二十二日.

관 동쪽으로는 이주를 선택했던 것이다. 우선 적근몽고의 경우 술탄 알리의 침입 당시에 명의 동원 명령을 받들어 군대를 파견하고 투르판의 선동 사신을 살해하는 등 명에 보다 적극적으로 복종했다. 또한 하미의 충순왕 한신이 하미성을 수복하는 것을 돕기도 했으나 메크리 부가 1483년에 이들을 공격하면서 적근의 세력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투르판이 1513년에 하미를 차지한 후 적근을 약탈하기 시작했고, 결국 적근의 제 세력이 숙주의 남산으로 이주하여 성이 텅 비었다고 한다. 전술한 『변정고』에 등장하는 숙주 거주 종족 중에 ‘적근몽고위’와 ‘적근성’ 족이 옛 적근몽고위와 관계된 이들이라 볼 수 있다. ‘적근몽고위’ 족의 도독 쇠남숙(鎖南束)은 『명사』에 등장하는 적근몽고위 추장의 후손이며, ‘적근성’은 적근에서 오이라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세웠던 성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들 외에도 몇몇 종족이 적근몽고위와 관련되어 있다. 『수역주자록(殊域周咨錄)』에 따르면 적근 부락의 원 거주지는 적근 외에도 고육(苦峪), 왕자장(王子庄), 선마성(扇馬城), 대초탄(大草灘) 등이었는데, 이 무리들이 황달자(黃達子)의 침입을 받아 숙주 남산의 묘래하천(卯來河泉) 지방으로 이주하였고, 나머지 이들도 정덕 8년에 회적(回賊)의 침입을 받고 투항하여 내주(來州) 내임현성(來臨縣城)의 사경보(四頃堡)나 금탑사(金塔寺) 등에 자리했다고 한다(嚴從簡, 2000: 467). 그런데 전술한 『변정고』에는 앞서 언급한 ‘고육성’, ‘왕자장’, ‘선마성’, ‘대초탄’이라는 이름을 지닌 종족이 등장하며, ‘고육성’과 ‘왕자장’을 비롯하여 ‘시성아(柴城兒)’, ‘천변(川邊)’까지 네 종족이 정덕 11년에 금탑사 및 임성(臨城) 연변의 상하점성(上下古城)에 자리했다고 한다. 또한 ‘선마성’ 족은 숙주 북부의 아와(鴉窩) 지방, ‘대초탄’ 족은 사경보(四頃堡)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적근몽고위 출신으로 볼 수 있다.

한동위 역시 모굴 칸국에 맞서는 명의 동원 명령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기도 했으나, 이브라힘 왕이 칭하이로 유입되었던 16세기 초에 큰 타격을 받아 세력이 약화되었고, 뒤이어 투르판의 세력이 숙주를 공격할 무렵 도지휘 지단(枝丹)의 부락이 감주로 이주했다. 그러나 『변정고』에는 감주에 관한 기록은 없고, ‘한동’족이 도지휘 판단(板丹)이라는 인물의 지배하에 있다가 이브라힘의 공격을 받아 서녕 걸탑진(乞塔真) 지방에 자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한동위의 일부인 한동좌위의 경우, 1516년에 투르판이 하미를 점령했을 때 그곳의 추장인 걸

태(乞台)가 명으로 투항하여 숙주에 자리했으며, 그 부하인 테무게(帖木哥)와 토빠(土巴)는 투르판에 복속했다가 1528년 투르판과의 관계가 어긋나자 명에 복속했다. 『명사』에는 1511년에 걸태의 자리를 일고(日羔)가 계승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변정고』에서 사주도독 ‘일고탈(日羔刺)’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정덕 14년 전에 무리를 이끌고 숙주로 복속하여 숙주성의 관상(關廂)에 거주했다고 한다.<sup>69</sup> 그 외에도 ‘테무게’ 족 및 ‘토빠’ 족은 가정 7년에 고태수어천 호소번(高台守御千戶所番)의 백성산(白城山)에 자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수역주자록』의 기록에 따르면 한동위는 좌위와 우위로 나뉘어져 있으며, 좌위에는 걸태-일고로 이어지는 계보 외에도 다른 도독이 있는데, 그 도독의 이름은 파니(帕泥)이며, 두목 상복속(賞卜束)과 더불어 홍치 10년에 테무게, 토빠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숙주 남산 황초패로(黃草壩)로 이주하여 주둔했다고 한다. 한편 우위 도지휘도 2인인데, 그중에 하나는 총아(總牙)이며 정덕 12년에 숙주 북로지방에 자리했다가 훗날 남산 황초패로 이전했다. 또 다른 도지휘는 명사에 등장하는 지단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판단(板丹)으로 정덕 7년에 이브라힘의 공격을 받아 남산 일대로 이주했으며 숙주성 동쪽의 나가만(羅家灣)에서 목축을 행했다고 한다(嚴從簡, 2000: 478). 그런데 이 기록을 고려하면서 『변정고』의 기록을 읽어 보면, 숙주에 거주하는 종족 중에 합랄독(哈剌禿)이라는 이름을 지닌 세 종족이 눈에 띈다. 이 세 종족의 두목의 이름은 각기 파니, 남합아(喃哈兒), 빈발라(賓發囉)이며 각기 숙주 주변의 황초패산, 유림(榆林)산, 건파(乾埧)산에 거주하며 유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파니가 이끄는 ‘합랄독’ 종족은 한동좌위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파니의 도독인 상복속의 이름은 『숙진지』의 ‘숙주에 자리한 10개의 부락’에 관한 기록 중에 등장하는데, 그중에 파사파이가(怕思怕爾加)족의 아버지가 상복속, 아들의 이름이 빈패라(賓孛羅)라 되어 있으므로 합랄독의 세 번째 두목 역시 한동좌위의 두목 출신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사료에서 ‘남합아 족

<sup>69</sup> 그가 이끄는 부족의 이름이 ‘합랄회’인 점이 독특한데, 이에 관해 『수역주자록』에서는 일고탈 및 테무게, 토빠 등이 하미의 유민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嚴從簡, 2000: 477). 일고탈 본인은 한동 부락인인 엄장의 후손으로 한동인이기는 하나, 테무게나 토빠는 투르판의 명을 받아 하미에서 활약한 곡선위 출신의 아란과 인척관계였으므로 이들이 본래 하미의 유민 출신이었거나 적어도 하미에서 사주로 달아난 이들을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은 상복속의 동종이며, 이들이 각기 건파, 황초, 유럽 세 산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합랄독 족은 모두 한동좌위 출신이 된다. 『속진지』의 기록에 따르면 합랄독은 한동좌위의 시조인 엄장의 아들 중에 하나이며, 그 외에도 '홍모아(紅帽兒)'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변정고』의 영창위변에 주둔한 이들에 관한 기록 중에 '홍모아' 족이 존재하므로 이들 역시 한동좌위 출신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변정고』에 '사주족'이라는 이름으로 숙주에 자리한 이들의 두목이 '총아'이므로, 이들은 이름과는 달리 사주위가 아닌 한동위의 도지휘가 이끄는 무리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동위가 사주위 폐지 후 한동안 사주위의 영역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종합해 보면 관서 4위중에 간쑤 지방에 자리했던 네 위소는 모굴 칸국의 공격을 받아 관동으로 대거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굴 칸국의 영향력은 이들 네 관서에 국한되지 않았으며, 남쪽에 위치한 샤릭위구르 역시 모굴 칸국의 압력의 여파를 강하게 받아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곡선위나 아단위는 2장에서 언급한 사신 살해 사건 직후에 몇 차례 명으로 사신을 파견했으나 1444년에 안정왕이 그들을 약탈한 후 명과의 사신 왕래가 단절되었다.<sup>70</sup> 다만 곡선위의 그 이후 상황은, 투르판의 술탄 알리 시기부터 아흐마드, 만수르 칸 휘하에서 두각을 나타낸 곡선위 출신 인물에 관한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술탄 알리가 하미를 차지한 후 그곳에 주둔케 했던 그의 매부 아란(牙蘭)은 본래 곡선위의 추장 탈제(脫帝)의 동생이었는데, 이 인물에 대한 『수역주자록』의 기록을 보면 그가 8세이던 때에 곡선이 투르판과 서해 몽골인들의 공격을 받았고, 그는 투르판으로 끌려갔다가 장성하여 투르판의 두목이 되어 술탄 알리의 신임을 얻었다. 그는 술탄 알리의 하미 공격에 가담하여 하미왕의 인신을 빼앗고 하미에 수년간 주둔했으며, 술탄 알리가 사망하고 아흐마드 칸, 만수르 칸 등 모굴 칸국의 칸들이 투르판과 그 일대를 차지한 후에도 줄곧 하미에 배치되어 있다가, 가정 7년에 만수르 칸과의 불화로 인해 주살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형의 처남이었던 한동좌위의 테무게, 토빠와 더불어 숙주로 투항했다.<sup>71</sup> 한편 그의

<sup>70</sup> 英宗睿皇帝實錄, 正統九年/十一月/二十四日.

<sup>71</sup> 世宗肅皇帝實錄, 嘉靖七年/六月/二日; 『변정고』에는 그가 이끄는 '투르판' 족이 사주에서 투항

형인 탈제는 본족(本族)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다가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기록만 남아 있으므로 곡선위 중에는 명에 투항하지 않고 본토에 남아 있었던 이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란과 마찬가지로 투르판에서 활약한 곡선위 출신 중에 『고창관과』에 그 상주문이 수록된 우와이스왕(兀也思王)이 있다. 우와이스왕은 술탄 알리 사후 1481-7년 사이에 투르판을 차지한 인물인데, 이 인물이 곡선에서 수차례 사신을 파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다. 그중에는 우와이스 왕의 조부가 일찍이 명에 사신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 상황이 어려워져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은 상주문도 있다.<sup>72</sup> 그에 관한 몇몇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일생을 추측컨대 그는 곡선위 출신으로 투르판이 곡선위를 차지했을 때 아란과 마찬가지로 투르판으로 향했다가 결국에는 이밀 호자(也密力火者), 술탄 알리의 뒤를 이어 투르판을 차지했는데, 투르판을 차지하기 전에 명으로부터 후원을 얻기 위해 수차례 사신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종합해 보면 곡선위는 전술한 다른 위소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투르판 지방 세력의 공격을 받아 그들의 영향권하에 들어갔는데, 지배층 중에 몇몇은 투르판의 지배층으로 성장한 이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변정고』에서는 곡선위가 망했다는 기록 외에 다른 위소처럼 가옥관 동부로 이전하여 자리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의 대부분은 아란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관서 현지에 남았거나 서쪽으로 이주했을 것이다.

한편 안정위는 투르판의 침입 당시에 명의 측에 서서 꾸준히 항전했다. 그 예로 『고창관과』에 수록된 화주(火州)의 천호 이스마일(亦思麻因)의 상주문에 의하면, 그는 본래 안정위 소관의 두목이었는데 변방에서 오랫동안 노력해 왔고, 특히 양의 해(羊九年)에 투르판이 침략했을 때 맞섰다고 보고하였다.<sup>73</sup> 그러나 16세

한 번이(番夷)를 이끌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사주에 주둔했던 한동좌위의 일고랄에게 맡겨졌으나, 『수역주자록』을 보면 그의 형인 탈제가 테무게의 누이와 결혼한 후 곡선위 인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무리들이 테무게에게 의지하여 사주에 머물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무리들은 본래 곡선위의 잔존 세력으로 볼 수 있다(嚴從簡, 2000: 470).

<sup>72</sup>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經部·高昌館課(1988: 309).

<sup>73</sup> 曾文芳(2002: 33);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經部·高昌館課(1988: 316).

기가 되면 안정위는 전술한 이브라힘의 공격에 의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결국 1512년에 여타 위소처럼 관동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그런데 관동으로 이주했던 무리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 보면, 왕전이가(汪纏爾加)가 하주와 귀덕(歸德)으로 옮겨 가 거주했다가 가정 7년에 국사 및 여러 승려 무리들과 더불어 사당천(沙塘川)에 자리했다는 기록이 전부이다(嚴從簡, 2000: 469-470). 또한 『변정고』에는 안정위 출신과 관련하여 ‘강전이가(江纏爾加, 앞의 왕전이가와 동일인물로 보인다)’를 비롯한 승려 및 속인 20명이 서녕의 ‘사당천’ 지방에서 목축을 행하고 있다는 기록 밖에 없으므로, 명에 정착한 안정위 출신은 안정왕 및 국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셈이다. 한편 아단위 역시 황하뇌(黃河腦)에 자리하고 있으나 존멸(存滅)의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기록이 전부이다. 즉, 샤릭위구르의 대부분은 본토에 남았고 그중 일부는 모굴 칸국의 지배에 들어갔으며, 안정왕과 국사 등 지배층 몇몇만 관동으로 이주했음을 알 수 있다.<sup>74</sup>

이처럼 본토에 남겨진 샤릭위구르의 운명에 대해서는 페르시아어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라시드사』에는 923년(1517년경) 봄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샤릭위구르 관련 기록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굴 칸국의 사이드 칸(Sayyid Khān)이 샤릭위구르로 군대를 파견한 사건이다(Dughlat, 1996: 290). 『라시드사』는 샤릭위구르를 ‘키타이(Khiṭā)와 호탄 사이에 위치한 이교도 집단’이라 불렀으며 샤릭위구르에 대한 전투를 성전(聖戰)이라 칭하여 전투의 원인을 종교적으로 설명했으나(Dughlat, 1996: 291), 이는 이슬람권의 역사서에서 비무슬림과의 전투를 묘사할 때

<sup>74</sup> 『변정고』의 기록을 보면 하미, 한동위, 적근몽고위, 한동좌위에 속했던 여러 집단들의 수는 적게는 몇 백 명에서 많게는 몇 천 명에 이른다. 예를 들어 하미 출신의 하미위구르합탈회는 252명, 위구르는 300명, 하미위신합탈회는 778명이므로 전체가 1000명 정도가 되는데 하미의 경우 전 인구가 이주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위소의 이주자들은 몇 천 단위를 헤아린다. 이에 비하면 안정위의 이주자는 20명이며, 아단위나 곡선위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張雨, 2011: 245-250). 다만 이 기록은 16세기 상반기까지의 기록이며, 이후에 그 이후에도 이주했을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청대의 샤릭위구르 현황에 대한 佐口透의 연구에서는 청대 감주 부근에 자리했던 서랄고이(西喇古爾)의 황번인(黃番人)과 흑번인(黑番人)에 관한 몇몇 사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西喇古爾’라는 단어 자체가 ‘시라 위구르(Sira Uygur)’ 즉 황색 위구르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황번인은 원조의 지파(支派)로 명 말에 감주 남산으로 이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샤릭위구르가 16세기 후반기에서 17세기 상반기에 감주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그중에서도 탕구트(唐烏忒)족이었던 흑번과는 달리 달단 족이며 원의 지파인 황번은 안정위와 그 휘하의 이들이었을 것이다. 1696년에 이들의 수가 6,079명에 달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관용어구일 뿐 실제로는 그 외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에 사이드 칸은 만수르 칸 및 악수에 자리했던 또 다른 형제인 바바작 술탄(Bābāchāq Sulṭān)과의 회견을 통해 텐산 남부 오아시스 도시의 북쪽 통로에 위치한 형제들과 평화관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평화는 『라시드사』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졌지만, 그 결과 사이드 칸의 영역인 야르칸트(Yārkand)-카쉬가르-호탄 등 알티샤흐르의 주변에서 그가 영토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은 동쪽과 남쪽으로 한정되어 버렸다. 그런데 이곳은 텐산 이남의 다른 오아시스 도시에 비해 기온이 높고 도시 주변에 초지가 부족하며 모래바람이 강해 유목하기에 적합지 못한 곳이었다(Dughlat, 1996: 247). 그러나 이들이 이끄는 유목민들은 아직까지 모굴리스탄에서 살던 대로 유목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이들에게는 초지가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들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유목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게다가 불과 수년 전에 명이 설치한 위소가 해체되고 지배층이 관동으로 이주했던 샤릭위구르의 옛 영역. 현재 신장위구르자치구의 동쪽 연안은 모굴 칸국에게 있어 영역 확장을 위한 가장 좋은 목표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사이드 칸이 샤릭위구르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인 1516년의 『명실록』 기록을 보면 그의 형인 만수르 칸이 충순왕 술탄 바야지드(速檀拜牙即)를 포로로 잡아 간 상황에서, 하미의 부증은 과거 안정왕이었던 천분(千奔)의 후손을 새로운 충순왕으로 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다.<sup>75</sup> 전술했듯이 샤릭위구르의 대부분의 세력은 관동으로 이주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그중에는 옛 안정왕의 후손도 있었는데, 그가 하미 충순왕의 공석을 메울 대체자로 부상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수르 칸과 연합한 사이드 칸이 샤릭위구르를 공격한 것은 하미와 안정 세력의 연합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sup>75</sup> 武宗毅皇帝實錄, 正德十一年/五月/十日; 하미위 충순왕과 안정위 안정왕의 계승 문제는 그 이전에도 있었다. 1490년 무렵 하미의 충순왕의 자리가 비었을 때 명에서는 옛 안정왕의 조카이자 옛 충순왕 토토의 질손이었던 섬파(陝巴)를 충순왕으로 세웠는데, 안정왕 천분은 자신의 동생 작아가가 충순왕이 되는 것을 추천했으나 명에 의해 거부되었다. 일찍부터 충순왕 계보에 속하는 남성이 부족했던 하미에서 안정왕의 후손을 초빙하려 했던 것은, 같은 차가타이 칸의 후예이고 명의 위소인데다 가까운 곳에 자리했던 안정왕의 후손이 그들의 군주가 되기에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하미와 안정과 모굴 칸국 간의 갈등은 사실상 차가타이 후예들 간의 세력 쟁탈전이였다. 만수르 칸과 사이드 칸 형제는 모두 몽골제국의 후손이었으므로, 같은 차가타이 가문의 후손이기도 한 충순왕의 자리에 대해 간여할 명분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사실 관서 일대에 위소가 설치되었을 때부터 모굴 칸국은 상황이 허락할 때마다 관서 위소의 상황에 간여하곤 했다. 15세기 초반 달단 카간인 굴리치가 하미 충순왕을 살해했을 때 당시의 모굴 칸인 샤미자한은 굴리치가 몽골 제국의 후예를 살해했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했고, 15세기 후반에 한신이 충순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아흐마드 칸은 그가 옛 충순왕의 족인(族人)이 아니므로 왕이 될 수 없고, 자신이 등극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신을 유인하여 살해했다.<sup>76</sup> 이와 같은 모굴 칸의 인식을 보여 주는 증거로 만수르 칸이 적근몽고에게 보낸 칙령이 있는데, 그 칙령에서 만수르 칸은 스스로가 몽골 제국의 후손임을 강조하면서 적근의 복속을 요구했다(김호동, 1993: 135-6). 하미와 안정이 자리했던 칭하이성 서부 일대에는 이처럼 16세기 초까지도 몽골 제국의 후예들, 특히 차가타이 계열이 세력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결국 모굴 칸국이 이들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투르판에 자리한 모굴 칸국은 하미나 칭하이성 서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이상으로 동진하지는 못했으며, 그 너머의 간쑤·칭하이 전역은 전술한 오이라트 세력이 장악했다. 『라시드 사』에서 이브라힘 옹의 아들인 바부라이(Babūlay)가 일군의 무리와 함께 키타이로 향했다가 만수르 칸과 전투를 벌였다는 기록은 오이라트와 모굴 칸 세력의 충돌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이나(Dughlat, 1996: 58), 결국 16세기 초에 하투부터 간쑤 새외, 가옥관 서쪽을 돌아 칭하이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몽골 세력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이 몽골 세력은 ‘청해 몽골’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들이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굴 칸국과 청해 몽골은 16세기 초반에 기존 관서 위소들의 영토 및 주민들을 나누어 소유했다. 물론 양자의 갈등은 그 이후로도 이어졌지만 대체로 양자를 가르는 경계선이 생겨났는데, 이는 현재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간쑤·칭하이성 사이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이 경계선은 곧 종교적

<sup>76</sup> 殊域周咨錄, 土魯蕃, 弘治元年條; 明史紀事本末, 興復哈密, 弘治元年條; 明史·哈密衛傳.

영향력의 경계선이기도 하여, 현재에도 신장위구르자치구에는 위구르계 무슬림들이, 간쑤-칭하이성에는 티베트계 주민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물론 16세기 이후로 몇몇 무슬림들이 티베트 문화권인 하서회랑이나 몽골, 심지어는 티베트 본토로 선교여행을 떠났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지만 이는 점처럼 분산된 일부의 무슬림 공동체를 구축했을 뿐, 이전처럼 그 경계가 동쪽으로 확장되는 일은 없었다.<sup>77</sup> 이러한 경계선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관서 위소들의 구성원은 위에서 보았듯이 각기 투르판과 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그들의 선택 역시 종교와 상당부분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15세기 상반기의 사주위를 시작으로 적근몽고위, 한동위, 한동좌위는 가옥관을 넘어 관동에 자리 잡은 반면, 비교적 이슬람 색채를 보이는 하미나 곡선위는 투르판에 예속되었던 것이다. 특히 하미가 모굴 칸국에 복속한 와중에도 위구르 도독은 명으로 달아났으며, 티베트의 지지를 얻었던 안정왕과 그의 국사 역시 명에 복속했다.

이렇게 16세기 초에 두 종교의 경계가 비교적 뚜렷해지면서, 그 이후에 이 일대에서 나타난 충돌과 갈등은 오히려 종교적 측면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드 칸이 사망하기 직전인 1532년에 직접 참여했던 티베트 원정은, 보다 명확해진 종교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이슬람권과 티베트 불교권 간 종교적 충돌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졌다.<sup>78</sup> 즉, 여러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슬람

<sup>77</sup> 이슬람권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16세기 초는 중간시기(Middle Period, 10~15세기)와 근세(Early Modern, 16~18세기)를 가르는 시점이다. 고전시대(Classic)에 폭발적으로 확장되었던 이슬람권 영역은, 약간의 둔화는 있었으나 중간시기에도 여전히 확장세를 이어 나갔다. 중국과 접하는 동쪽 경계를 예로 들면, 몽골 시대 직전까지는 러시아령 중앙아시아에도 불교 사원이 있었고 14세기 후반에는 위구르스탄에 수많은 불교도들이 존재했으나 15세기에 걸쳐 그들이 동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했다.

<sup>78</sup> 모굴 칸국의 군대는 1532년 7월경(이슬람력 938년 둘 히자 월, 현재 파키스탄 북동부에 해당하는 발티스탄을 시작으로 동쪽으로 진격하다가 카슈미르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러나 칸에게 고산병 증세가 나타났으므로 그는 아르칸트로 되돌아갔고, 대신 미르자 하이다르로 하여금 ‘우르상(Ursang)’으로 향하게 했다. 이후 미르자 하이다르는 4개월에 걸쳐 티베트 서부 아리지구를 횡단했으나, 자연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데다 그의 주군 사이드 칸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라시드 칸이 본인의 친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티베트에서 철수했다. 『라시드사』는 티베트가 기왕의 이슬람권 지리서에 언급된 적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티베트의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 영역을 발루르 서쪽이자 칸젠푸(산시성) 하주(河州) 살라르의 동쪽, 카슈가르의 남쪽이라 비정했다. 이는 현재의 시짱티베트 자치구뿐 아니라 칭하이성과 쓰촨성 동부를 아우르는 광의의 티베트 문화권에 해당한다.

측에서 티베트 불교인들을 무력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침공한 사건'이라 해석했다.<sup>79</sup> 이 사건의 당사자이자 역사가인 하이다르(Mirza Muhammad Haydar)가 이 사건을 철저한 성전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은 이러한 인식을 뒷받침했다. 그의 저서인 『라시드사』은 만수르 칸의 키타이와 오이라트에 대한 공격 또한 '성전'으로 묘사했으며, 그 와중에 사망한 카타키 교단의 후예 타즈 앓 딘(Taj al-Din)의 죽음은 순교로 기록되었다.

한편 관서 여러 세력의 정체성을 종교로 가늠하는 것은 비단 이슬람 사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무렵 변경 수신들의 상주문에는 투르판의 모굴 칸국을 회이(回夷)라고 지칭하는 기록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1519년에 발생한 황족 주신희(朱宸濠)의 반란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회이가 다가와 옆구리에 번승을 (끼고) 불리들여 (그들이) 뒤따랐다[至如同夷近在肘腋番僧召入隨行.]”라는 표현이 등장한다.<sup>80</sup> 그 외에도 모굴 칸국을 회(回), 회적(回賊)으로 표시하는 사료들이 많아, 이 당시 명에서도 종교를 기준으로 서북의 제 세력을 구분지어 파악하

<sup>79</sup> 우선 조셉 플레처는 1976년 자신의 논문에서 16세기에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일대에서 활약한 호자 이스하 왈리의 생전에 유목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슬림 선교사들의 최대 적은 티베트에서 수입된 불교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자콘(Zarcone)은 1995년 자신의 논문 “Sufism from Central Asia among the Tibetan in the 16-17th Centuries”에서 낙쉬반디 수피교단의 추종자인 사이드 칸과 무함마드 하이다르 미르자가 종교적인 열정과 교단 특유의 선교에 적극적인 교리적 특징에 의거하여 티베트 인들을 개종시키고자 침공한 것으로 보았다. 즉 16~18세기에 이슬람과 티베트 불교가 영향력의 경계선에서 갈등을 빚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좀 더 이론화한 엘베스콧(Elverskoq)은 2010년 그의 저서 *Buddhism and Islam on the Silk Road*에서 불교와 이슬람의 상호 관계를 초기부터 청대에까지 통사적으로 살펴보았는데, 4장에서 그는 몽골제국 시기까지 접촉은 있었지만 충돌은 일으키지 않았던 양 종교가 점차 충돌을 빚었음을 설명하면서, 그 원인을 이슬람의 팽창의 정지 및 그 영역의 정치적 파편화, 불교와의 대치 및 그 가운데에서 생겨난 지하드(Jihad)의 이론에 돌리고 있다. 그런데 그 이슬람-불교의 대립이 바로 15세기, 우와이스 칸이 정치친화적인 교파인 낙쉬반디 교단을 신봉하고, 에센 칸이 불교도가 되었을 때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16세기 초에 티무르조의 멸망과 더불어 사파비의 시아화로 인해 모굴 칸국의 낙쉬반디 교단이 동쪽에 집중했을 때 티베트에 대한 성전이라는 표어가 수면에 떠올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16세기 이후 이슬람과 티베트 불교가 세력의 경계선에서 일종의 갈등을 겪었다고 본 반면, 론 셀라(Ron Sela)는 2012년 그의 논문에서 반대의 의견을 표했다. 론 셀라는 플레처의 의견을 검토하고자 당시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사료들을 검토하며 16~18세기 사이 티베트 불교에 관한 무슬림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는데, 그 사료 속에 양자의 실제적인 충돌에 관한 증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슬람의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은 예부터 이어져 오는 관습적인 수사에 그칠 뿐이라고 설명했다.

<sup>80</sup> 武宗毅皇帝實錄, 正德十四年/十月/三日.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관서 일대에서 발생한 갈등을 오롯이 종교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해야 할까? 이 지역이 두 종교 세력권으로 나누어진 것은 앞서 살펴보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일대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을 종교 갈등이라고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비무슬림 이교도에 대한 공격을 성전으로 포장하는 것은 무슬림 역사서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관습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라시드사』에서 성전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수르 칸의 동진 및 사이드 칸의 샤릭위구르 공격은, 전술했듯이 종교 외에 다른 원인이 존재했다. 마찬가지로 1532년 티베트 원정 역시 모굴 군대의 진격 경로가 티베트 교단이 집결해 있는 위짱 지역, 즉 ‘키타이와 티베트의 키블라’에 미치지 못한 채 서부지역에 한정되었던 데다,<sup>81</sup> 이들이 진격 도중에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카슈미르(Kashmir), 누브라(Nūbrah), 발티(Bālti), 마르울(Māryūl) 등이 당시에 이미 이슬람권이었으므로 이 원정이 애초에 오롯한 비무슬림에 대한 성전으로 계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그들이 거쳤던 티베트 서부지역인 아리(阿里) 지방에는 이 당시 티베트 본토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녔던 파그모두파(Phag mo gru pa)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왕국이 건설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모굴 칸국의 실제 공격 목표는 중앙

81 『라시드사』의 저자는 호탄과 힌두 도시들 사이에 위치한 ‘티베트의 영역’에 라다크(Ardaq), 구계(Ghūghe), 스피티(Aspiti) 등이 있다고 하였다(Dughlat. 1996: 355). 또한 저자는 실제 티베트 원정을 진행했으므로 자신이 거쳤던 지명을 나열했는데 발티부터 라브시카르(Rābshkār), 마르울(Māryūl), 파두크(Padūq), 쿨레(Kūle), 루두바르스(Rūdūbārs), 준케(Jūnke), 마스카브(Maskāb), 지르수(Jīrsū), 칸카르(Kānkār)까지였다고 한다. 그중에 위의 세 지명, 라다크와 구계, 스피티는 현재에도 볼 수 있는 지명으로 당시에 왕국을 이루고 있던 대 영역이었다. 스타인(R. A. Stein)의 1981년 지도를 보면 라다크 레 지역과 네팔의 돌포(Dolpo) 지역 사이에 마르울이 위치해 있고, 그 동남 쪽이 구계 왕국이며 마르울보다 좀 더 인도 쪽으로, 지금의 심라 지역이 스피티라고 한다. 이 지역은 대체로 카일라스 산 서북쪽에 해당하는 아리 지구이다. 한편 그 뒤에 나열된 지명의 경우 마르울보다 동쪽에 위치하므로 아리지구를 벗어나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르카썬 시, 즉 시가체(쌍) 지역에 포함될 것이나, 그 지명이 생소하여 하이다르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하이다르는 자신이 거쳐 간 곳을 설명한 후 ASKBRQ와 방갈라(Banghāla)를 언급하며 두 지역 사이가 대략 24일의 경로이며, 우르상(Ūrsang)은 ASKBRQ의 동쪽에, 그리고 방갈라는 남쪽에 위치하는데 우르상은 티베트와 키타이의 키블라이며 거대한 사원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라싸를 의미하는 것이며 ‘방갈라’는 방글라데시 혹은 그 서쪽의 벵갈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이다르는 자신이 우르상을 목표로 4개월을 나아갔으나 도중에 귀환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대략 아리 지구에서 멈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티베트가 아닌 티베트 서부의 왕국들에 한정되었을 공산이 크다(Dughlat, 1996: 94). 이 지역이 중앙 티베트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적어도 수십 년 이후의 일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관서 위소들의 선택 역시, 단순히 종교적 요인만이 작용한 것은 아니었다. 즉, 티베트 불교도이기 때문에 티베트와 긴밀했던 명을 선택하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인 모굴 칸국에 복속하는 식의 순수한 신앙심의 발로는 아니었던 것이다. 관서 위소 중에 다수는 원대에 티베트 본토 및 그 주변을 행정적·군사적으로 관할하기 위해 임명된 종왕 및 관료들의 후손으로, 이들의 지배층은 몽골-투르크계였으나 피지배층 중에는 티베트 인들이 많았다.<sup>82</sup> 또한 명에서는 관동의 몇몇 위소들, 즉 해주나 서녕, 조주(洮州)와 민주(岷州) 등을 행정 근거지로 삼아 관서 위소와 티베트로 향하는 물자를 통제했는데, 이 위소들에는 원대의 토번 선위사 출신인 해주위를 비롯한 티베트 인 관료들이 토관으로 임명되어 있었기 때문에 티베트 인들이 관서 위소의 경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관서 위소에는 수장이나 왕 외에 국사와 같은 고위 티베트 승려가 존재했고, 한동과 같이 승려의 초무를 받아 명의 위소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명은 티베트 불교가 이 일대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의 각 법왕 및 왕들을 경제적으로 후원함으로써 명이 티베트 불교에 호의적이라는 인상을 구축했으며, 승강사(僧綱司)와 같은 제도를 적용하여 각 위소의 고위 승려들에게 추장과 별도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했기 때문에 각 위소에서 승려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관서 위소의 다수는 신앙심이 아니더라도 경제, 정치, 사회적 요인에 의해 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관서 위소부터 시작하여 서역 일대에 걸쳐 분포해 있던 회회인들은 예부터 중국의 변경 도시에 열린 시장과 서부의 주요 무역 거점 도시에 열린 시장을 연결하는 중개무역을 주요 경제 활동으로 삼아 왔다. 그런데 이들이 중국

<sup>82</sup> 이에 관해서는 『숙진지』의 숙주 남산에 거주하는 10개 부락에 관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인 즉슨, 이 부락들이 영락제 시기 몽고, 한동 등 위 출신으로 정덕연간에 숙주로 귀부했는데, 이들의 말하는 언어가 북변의 제번과 다르며, 민머리(光頭)와 늘어뜨린 머리(垂鬚)를 가지고 있어 모두 서번이라 여겼다고 한다.

의 변경 도시에 다다를 동안 거쳐야 했던 모든 오아시스 도시들이 차례로 이슬람화되었고, 16세기 초에는 하미까지 모굴 칸국의 판도에 들어오면서 가옥관 이서의 일정 규모를 가진 오아시스들은 모두 이슬람화되었다. 이때 이슬람은 대대로 이어져 온 그들의 생업을 공유하는 각 오아시스의 구성원들을 결속케 하는 구심점으로서, 단순한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17세기 초에 라호르(Lahūr)에서 매년 중국으로 향하는 대상단에 합류하여 야르칸드를 거쳐 중국 속주를 방문했던 선교사 베네딕트 괴즈(Benedict Goës)의 기록에 따르면, 중앙아시아의 여러 오아시스들은 명나라 황제에 대한 공물을 운반한다는 조공 사신단이라는 명목 하에 오아시스의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대상단을 꾸렸고, 각 오아시스의 지배자는 공동의 성공을 위해 이 대상단이 자신의 오아시스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자신의 상인을 투입했다. 또한 도시의 유력자들은 상인들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대출해 주었고, 상인들은 여행이 끝난 후에 번 돈으로 투자금과 대출금을 갚으며 다음 여행을 준비했다. 이처럼 여러 오아시스가 조직적으로 꾸려 나가는 대상무역은 이슬람의 고유 율법과 문화, 그리고 같은 종교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교도로 보이는 괴즈가 대상단에 합류하자 많은 무슬림들은 그를 견제하고, 때로는 이슬람의 맹세를 강요하기도 하고, 종교 논쟁에 그를 초대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개무역을 누대에 걸친 생업으로 삼는 회회인들이 이슬람권 국가를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뿐 아니라 경제적 미래를 위해서도 필연적인 일이었다. 그런 점에서 종교라는 요인은 단순히 특정 교리에 대한 믿음과 열정만이 아니라, 그 종교를 기반으로 구축되는 경제·사회·문화·정치적인 요소를 아우르는 복합적 요인이었던 것이다.<sup>83</sup>

<sup>83</sup>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에 반하는 선택을 행한 하나의 사례가 하미의 합랄회 무리이다. 앞서 보았듯이 합랄회는 무슬림 집단이나, 하미가 투르판의 공세에 휩싸여 있을 때 명에 귀부했다. 이즈음 그들은 수차례 명으로부터 식량과 여러 물자를 제공받았고, 결국 그 수장인 바지르미시(拜送力迷失)는 그 이전에 수차례 하미의 회회 도독인 사이드 후세인과 함께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에 귀부했다(孝宗敬皇帝實錄, 弘治十三年/十二月/十三日).

## V. 결론

본 논문은 14세기 후반에 명과 서·북 몽골 사이의 완충 세력이었던 가옥관 이서의 제 위소가 북부와 서부의 몽골 세력의 공세에 맞서 어떤 과정을 거쳐 15세기 말~16세기 초에 폐지되는지를 살펴보는 논문이다. 본문은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기 위소의 형성과 북·서 세력의 공세에 대한 위소의 대응, 그리고 위소의 폐지와 이후 향방에 관해 다루고 있다.

우선 1장에서는 7개의 위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7개의 위소는 모두 몽골제국의 종왕이나 도원수부, 또는 승상과 같은 고위 관료에서 기원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째서 명과의 우호관계를 선택했을까.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이 시기 북·서에 자리했던 몽골 세력이 비교적 약했다는 점, 반대로 명이 위소들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 또한 명이 당시 비한족 지역에 적용했던 토사제도로 인해 고도의 자치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위소들의 판단을 좌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장에서 다루었듯 15세기에 접어들면서 북쪽과 서쪽에서 각기 오이라트와 모굴 칸국의 세력이 강력해져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다. 특히 관서 일대에서 오이라트의 영향력은 1420년에 오이라트가 하미와 통혼을 맺었을 때부터 시작하여 1449년 에센 타이시가 명의 정통제를 사로잡았을 때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때 명에 의해 추장으로 임명된 이들은 줄곧 명의 지시에 순응하여 오이라트에게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던 반면, 위소 내에서 추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또 다른 세력은 오이라트 세력과 손을 잡고 명의 사신을 공격하는 등 서북 변경에 혼란을 야기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로 사주위의 추장이 가옥관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폐지되었고, 곡선위가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투르판에 점령되었다.

3장의 시기는 에센이 사망한 15세기 하반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에센이라는 구심점을 상실한 오이라트는 다얀 칸이 몽골리아 초원을 장악하자 물밑 듯이 관서 일대로 흘러들어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서쪽에서 모굴 칸국 역시 위구리스탄의 지배를 탈환하고 동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두 세력의 각축에 밀려 관서의 모든 위소가 차례로 폐지되었다. 이때 일부는 모굴 칸국에 예속되었고 다른 일부는 명의 강역 내로 이주했는데, 이들이 위치한 지역이 이슬람권

과 티베트불교권의 경계에 위치해 있다 보니 모굴 칸국에 복종한 이들은 상대적으로 무슬림들이 많고, 명으로 이주한 이들은 티베트불교도들이 많았다. 결국 15세기 말~16세기 초 관서 위소들의 폐지는 두 문화권의 경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르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러다보니 16세기 이후 이 일대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은 양 종교의 과도한 종교적 열정의 결과로 해석되곤 했다.

그러나 관서의 여러 위소가 각기 명과 모굴 칸국을 선택한 데에는, 전면에 드러나는 종교적 이유 외에 경제·정치적 이유가 맞물려 있다. 명은 관서 위소에 경제적 특혜를 베풀 때 티베트 인들을 매개로 삼았으며, 승려에게 경제·정치적인 특혜를 부여하여 위소 내에서의 위상을 제고했다. 마찬가지로 하미의 회회나 곡선위가 모굴 칸국을 선택한 것 역시 물론 무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들이 서역의 이슬람 상인 네트워크에 속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슬람권의 구성원과 티베트 불교의 구성원이 일으킨 갈등과 충돌을 종교적인 열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관서 위소의 폐지가 이루어진 16세기 초 이후, 중국 서부에서 이슬람 문화권과 티베트몽골 문화권의 경계는 과거에 비해 한층 명확해졌으며, 대체로 그 경계는 현재 중국의 간쑤-칭하이성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경계선과 일치한다. 14세기 이전에 만리장성의 서쪽 관문에 도달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했던 많은 여행자들은 불교 사찰과 이슬람 사원이 나란히 자리한 여러 도시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본문에서 보았듯이 명대 중기까지만 해도 무슬림과 불교도가 한 오아시스 도시의 공동 지배자로 활약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이슬람권 내에 비무슬림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반대로 티베트 불교 문화권 내에서 무슬림은 특수한 구역에 모여 사는 경우 외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두 종교 문화권의 변경 지역에서 양자 간의 혼재 상황은, 몽골 제국의 후예이면서 명과 우호관계를 맺었고, 무슬림과 티베트 불교도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던 관서 7위라는 모호한 존재의 소멸과 동시에 사라졌던 것이다.

## 참고문헌

『元史』

『明史』

『明實錄』

『明史紀事本末』

『欽正續文獻通考』

『明倫匯編官常典宗藩部』

저자 미상. 김장구 역. 2014. 『(역주) 몽골 황금사(*An Annotated Translation of the Mongol Chronicle Altan Tobči*)』. 동북아역사재단.

김호동. 1989. “『華夷譯語』의 「納門駙馬書」에 대한 再解釋: 14世紀後半 모굴汗國史解明의 一資料.” 『알타이학보』 1권, 15-34.

김호동. 1993. “이슬람勢力的 東進과 하미王國의 몰락.” 『진단학보』 76권, 107-142.

宮脇淳子 저. 조병학 역. 2000. 『최후의 몽골유목제국』. 백산출판사.

北京圖書館古籍出版編輯組 編. 1988.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6 經部·高昌館課』, 書目文獻出版社.

趙英 編. 2011. 『明代蒙古漢籍史料彙編-張雨·邊政考 外 四種』, 內蒙古大學出版社.

嚴從簡. 2000. 『殊域周咨錄』. 中華書局.

黃玉生. 1995. 『西藏地方與中央政府關係史』, 西藏人民出版社.

曾文芳. 2002. “明代哈刺灰人的来源、組成和名稱諸問題.” 『西域研究』.

錢伯泉, 2002. “明朝撒里畏兀儿諸衛的設置及其遷徙.” 『西域研究』.

胡小鵬. 2005. “察合台係蒙古諸王集團與明初關西諸衛的成立.” 『蘭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高啓安. 2005. “肅州南山的“哈刺秃”——以裕固族研究為中心.” 『西北民族研究』 44, 40-48.

楊富學. 2018. “元代敦煌伊斯蘭文化覓踪.” 『敦煌研究』 168, 11-21.

佐口透. 1972. “サリクーウィグル種族史考.” 『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谷光隆. 1972. 『明代馬政の研究』. 東洋史研究会.

杉山正明. 1982. “幽王チュベいとその系譜: 元明史料と『ムィズル-エンサーブ』の比較を通じて.” 『史林』 65-1, 1-40.

\_\_\_\_\_. 2004. 『モンゴル帝国と大元ウルス』. 京都大学学術出版会.

Czaja, Olaf. 2013. *Medieval Rule in Tibet The Rlangs Clan and the Political and*

- Religious History of the Ruling House of Phag mo gru pa with a Study of the Monastic Art of Gdan sa mthil* 1. Wien: OAW.
- Dughlat, Mīrza Muḥammad Haydar. 1996. *Tārīkh-i Rasbīdī: A History of the Khans of Moghulistan*. Sinasi Tekin and Gonul Alpay Tekin, ed. W. M. Thackston, Persian text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라시드사』)
- Elverskoq, Johan. 2010. *Buddhism and Islam on the Silk Road*.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Fletcher, Joseph. 1976. "Confrontations between Muslim Missionaries and Nomad Unbelievers in the Late Sixteenth Century: Notes on Four Passages from the 'Ḍiyā' al-qulūb'." In W. Heissig, ed. *Tractata Altaica*, 167-174. Harrassowitz.
- Hedin, Sven. *South Tibet* 7. <http://dsr.nii.ac.jp/toyobunko/VII-1-62/V-1/page/0121.html>.en(검색일: 2022. 5. 23.).
- Khwandamir, Ghiyas al-Din. 1994. *Habibu's-siyar*. Tome three. The Reign of the Mongol and the Turk, W. M. Thackston, ed. and tr. Cambridge: Dept. of Near Eastern Languages and Civilizations, Harvard University.
- Khwandamīr, Ghiyās al-Dīn. 1333Sh./1354-5. *Ḥabīb al-Siyar*. Jalāl al-Dīn Hamā'i, ed. Tehran: Khīyām. (『전기들의 벗』)
- Robinson, David M. 2020. *Ming China and Its Allies Imperial Rule in Eura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la, Ron. "Central Asian Muslims on Tibetan Buddhism, 16th-18th Centuries." Semantic Scholar Extracted View.
- Serruy, Henry. 1956. "Notes on a Few Mongolian Rulers of the 15th Centu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6-2, 82-90.
- \_\_\_\_\_. 1963. "A Note on the Wild Merkid." *Monumenta Serica* 22-2, 434-445.
- \_\_\_\_\_. 1967. *Sino-Mongol Relations during the Ming: The Tribute System and Diplomatic Missions (1400-1600)* II. Bruxelles: Institut Belge des Hautes Etudes Chinoises.
- \_\_\_\_\_. 1977. "The Office of Tayisi in Mongolia in the Fifteenth Century."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2, 353-380.
- Sperling, Elliot. 1983. "Early Ming Policy toward Tibet." Ph.D. diss., Indiana University.

- Slobodník, Martin. 2004. "The Relations between the Chinese Ming Dynasty and the Tibetan Ruling House of Phag-Mo-Gru in the Years 1368-1434: Political and Religious Aspects." *Asian and African Studies* 13, 155-171.
- Unknown. *Mu'izz-l-Ansāb fi Shajarat-l-Ansāb*. Bibliotheque Nationales Persan 67 (『계보의 영광』).
- Yakup, Abdurishid. 1999. "Two Alliterative Uighur Poems from Dunhuang." 『言語学研究』, 1-25.
- Zarcone, Thierry. 1995. "Sufism from Central Asia among the Tibetan in the 16-17th Centuries." *The Tibet Journal* 20-3, 96-114.

## Abstract

## The Subsequent History of the Remaining Force of the Mongol Empire: Guan-xi Wei-suo of the Ming Dynasty

Juyeon Lee *Kyung Hee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struction of small groups, which were the succeeding forces of the Mongol Empire that could not form a nation because of its size. These groups, Guan-xi 7 wei, was located between the Ming dynasty and Moghul khanate, Bei-yuan, and Tibet. Their members are Mongolians, Tibetans and Turkish and not the Han tribes. The Han tribes were located outside of the Ming dynasty but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tribes, and they were organized into Ming's military administrative districts, Wei-suo (衛所). The Han tribes were organized as Ming's Wei-suo from the late 14th century to the early 15th century, and were invaded by other succeeding forces of the Mongol Empire, which is Oirat (Western Mongol): Eastern Mongol forces from the north and Moghul Khanate from the west during the 15th century. Some of the Han tribes moved to Ming's territory and other Han tribes were subjected to the north-west powers in the early 16th century. This article examines all the process, divides the process into three stages, and considers several issues about each stage.

**Keywords** | Guan-xi 7 wei, Oirat, Bei-yuan, Moghul Khanate, Tibet, Ming

